

1. 이 冊子는 國土統一院의 政策調查研究計劃에 依據한 自體研究 報告書임.
2. 收錄된 內容은 統一問題와 關聯된 研究의 參考資料로 提供되 는 것임.

南 北 韓 比 較

南 北 韓 經 濟 現 況 比 較

刊行責任 洪 性 國
(調查研究室 補佐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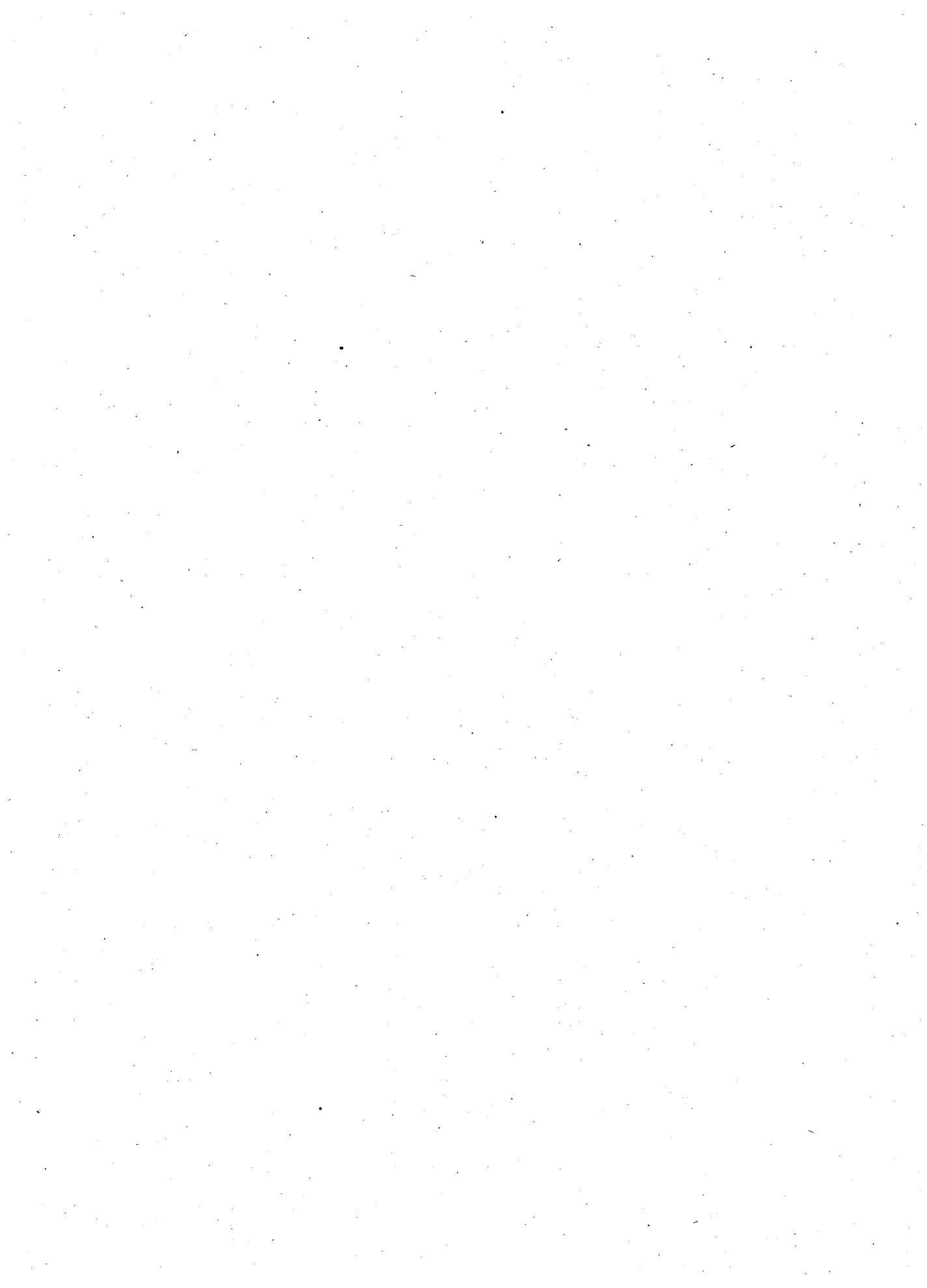
國土統一院 調查研究室

目 次

I. 南北韓 經濟比較의 意義와 接近方法	5
1. 南北韓 經濟比較의 意義	5
2. 南北韓 經濟의 比較基準	6
가. 比較 分析上의 制約條件	6
나. 比較를 爲한 接近方法	8
II. 南北韓 經濟의 本質	9
1. 經濟體制의 比較	9
가. 私的 所有制度와 社會的 所有制度	9
나. 市場經濟體制와 計劃經濟體制	10
다. 開放經濟와 閉鎖經濟	12
2. 經濟政策의 基本方向 比較	14
III. 南北韓 經濟開發의 成果 比較	17
1. 分斷 直後의 産業與件	17
2. 6.25 動亂과 戰後 産業復舊	19
3. 經濟的 成果	22
가. 産業開發計劃과 그 成果	22
나. 産業部門間의 構造	27
다. 南北韓 GNP 增加推移 比較	29
IV. 主要 部門別 現況 比較	32

1. 總量部門	32
가. 人口 및 領土	32
나. 國民總生産	34
2. 財政規模	35
가. 南北韓 財政制度의 特徵	35
나. 歲 出	35
다. 歲 入	37
3. 農水産業	38
가. 農業構造의 比較	38
나. 農業生産의 基盤	39
다. 食糧作物 生産	43
라. 畜産業 實態	45
마. 水産業 實態	45
4. 鑛工業	46
가. 政策目標 및 工業化 戰略	46
나. 鑛工業 資源과 에너지	47
다. 重化學工業	53
1) 鐵鋼 및 非鐵金屬工業	53
2) 機械工業	55
3) 化學工業	58
라. 輕工業	59
마. 技術水準	60
5. 輸送·通信	61

6. 對外去來	65
가. 貿易規模	65
나. 貿易構造	68
7. 住民生活水準	70
V. 南北韓 經濟成長 展望	73
1. 南北韓 經濟의 強弱點	73
가. 韓 國	73
나. 北 韓	74
2. 展望과 結論	76
가. 對內外的 經濟環境	76
나. 韓國 經濟社會 發展 展望	78
다. 北韓 經濟體制의 變化	79



I. 南北韓 經濟比較의 意義와 接近方法

1. 南北韓 經濟比較의 意義

1945年 光復과 함께 始發된 祖國의 分斷으로 因해 南韓과 北韓은 相異한 理念과 經濟體制를 形成하여 相互 競爭的으로 經濟發展을 追求해 왔다.

이러한 狀況은 비단 南北韓 當事者間의 차원을 넘어서 自由世界와 共產主義 諸國間의 體制競爭의 대결장으로 부각되어 어느 體制가 合理的이고 이상적인가를 判斷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특히 兩體制를 比較하는데 여러 가지의 方法과 基準이 있겠으나 한 국가가 追求하는 궁극적인 目標이 國民을 자유롭고 幸福하게 살게 하는데 있다면 經濟力量의 比較評價는 가장 主要한 基準指標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 時點을 基準으로 하여 南北韓間에 分斷以後 오늘까지 追求해 왔던 經濟發展의 結果를 客觀的인 經濟指標를 통해 比較하고 또 이러한 結果를 가져오게 한 基本原因이 어디에 있으며, 各各은 어떠한 長점과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評價하고 末來를 展望한다는 것은 큰 意義가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南北韓의 經濟比較를 通하여 揭示된 現狀은 「民族和合 民主統一 方案」에 따른 南北韓의 諸般 經濟協力이나 交流의 指針을 提供하고 統一된 祖國이 指向해야 할 國民의 自由와 福祉增進을 保障할 수 있는 發展的인 經濟體制와 秩序를 模索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2. 南北韓 經濟의 比較基準

가. 比較 分析上의 制約條件

比較經濟體制 (Comperative Economic System) 하에서 南北韓의 經濟實狀을 比較하는 것은 北韓의 經濟體制가 우리의 自由資本主義 經濟體制와는 根本적으로 그 本質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點이 많다.

첫째는 經濟體制的 相異에서 惹起되는 問題點으로, 北韓의 經濟秩序를 理解하고 南北韓의 經濟力量을 比較함에 있어서 民間經濟部門이 存在하지 않는 北韓의 經濟體制를 단순히 우리의 視角만으로 分析한다면 오류를 범하기 쉽다. 北韓을 包含하여 대개의 共產主義國家들은 私有財産을 否定하고 있어서 財産 및 生産手段의 所有形態는 勿論 流通秩序도 自由資本主義國家와는 크게 다른 實情에 있다. 이렇게 流通秩序가 다르므로 해서 流通過程에서 作用하는 貨幣의 機能도 兩體制間에는 서로 다르기 마련인 것이다. 따라서 共產主義 諸國의 通貨에 대한 換率의 適用問題 (Equilibrium of Foreign Exchange Rate) 가 그들의 經濟問題를 分析하는데 또 하나의 어려운 問題點이 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 北韓에서 使用하는 經濟用語나 概念이 自由市場 經濟體制에서 通常적으로 使用하는 經濟用語와 그 概念을 달리하는 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생기는 問題點이다. 北韓과 같은 社會主義國家에서 使用하는 國民所得의 概念은 우리가 一般的으로 使用하는 그것과는 다른 것이다.

특히 國民總生産(GNP: Gross National Product)에 대해 우리는 일정기간에 國民經濟가 生産에 의해 새로 追加된 財貨 및 用役의 價値合計를 말하고 있는데 반하여 北韓은 다른 共產諸國과 마찬가지로 社會總生産(GSP: Global Social Product) 概念을 使用하고 있다. 이는 一定期間에 社會主義經濟(우리의 國民經濟와 類似한 概念)에서 創出된 財貨의 단순 總生産高를 말하며 여기에는 우리 概念의 서어비스(用役) 部門은 除外되어 있으나 中間生産物은 二重計算되고 있다.

세째, 北韓에서 使用하고 있는 經濟統計의 單位가 우리가 通常적으로 使用하는 單位와 서로 다른 것이 많기 때문에 南北韓의 經濟統計를 同一基準에서 比較하기 爲해서는 技術的인 어려움이 따른다.

예를 들면, 北韓에서는 織物의 生産量을 表示할 때 단순히 미터법에 의한 길이로만 表示하고 幅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 正確한 生産量을 알기란 매우 어려운 實情이고 化學肥料 生産量은 단순히 物量基準으로, 精油能力은 무게단위로 發表하여 比較上에 많은 制約을 주고 있다.

네째, 南北韓間에는 産業構造와 消費패턴이 다르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에너지의 주종을 石炭에 依存하고 있는 北韓의 에너지 供給構造를 정유량이나 油類 消費量을 통해서만 分析하려 한다면 큰 오류를 범하게 될 것이고 石炭化學工業에 依存하는 北韓工業構造를 石油化學工業의 시각에서 把握하려 해서도 안되는 것이다.

끝으로 南北韓의 經濟力量을 比較하는 데는 資料의 貧困이 큰 問題가 된다.

閉鎖體制를 維持하고 있는 北韓에서는 1965年부터 經濟統計를 일

체 發表하지 않고 있으며, 간혹 金日成의 新年辭, 豫算決算報告書, 經濟計劃報告書 및 各種 行事的 報告書에 나오는 단편적인 몇개의 統計値가 北韓이 發表하는 經濟統計의 전부인데 그것도 大部分이 統計가 發表되지 아니한 一定年度를 基準으로 한 指倍數로 發表함으로 시계열이 결여됨은 勿論 實績의 과장선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北韓 經濟 分析에 커다란 障礙要因이 되고 있다.

나. 比較를 爲한 接近方法

전술한 바와 같이 南北韓의 經濟構造나 實態를 比較 研究하는데 있어서 直面하는 어려움은 이질적인 體制에서 오는 概念上的 差異와 正確한 統計의 未發表 및 發表된 統計의 신빙성 희박이다.

本 研究에 있어서도 이로 말미암아 比較에 相當한 制約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比較研究에 있어서는 個個 統計數値의 나열을 통한 단순한 比較보다는 그 本質的 差異의 糾明에 역점을 두었다. 이를 爲하여 주로 理念的인 問題에 관해서는 서술적으로 比較하되, 평면적인 서술을 피하고 가급적이면 그 特徵이나 基本性格을 부각시키려고 努力하였다.

또한 經濟力量 比較에 있어서도 양쪽의 經濟體制가 實現한 成果 (Performance)를 중점적으로 比較하고 이를 爲하여 一次的으로 經濟力量 比較에 必要한 北韓의 各種 經濟指標들을 一定基準 (資本主義的 概念)으로 統一시키고 다음으로 比較된 數値가 갖는 經濟構造上的 重要도와 成長率 및 經濟的 效率 등에 역점을 두고 客觀的으로 綜合 評價하고자 하였다.

Ⅱ. 南北韓 經濟의 本質

1. 經濟體制의 比較

가. 私的 所有制度와 社會的 所有制度

自由經濟體制는 私有財産制度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生産手段을 個人이 所有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社會主義 經濟體制下에서는 私有財産制度를 否定하는 바탕 위에서 生産手段의 所有를 全적으로 社會化하고 있다.

따라서 韓國은 國民生活에 決定的인 影響을 미치는 道路, 港灣, 發電施設 等 主要 社會間接資本 施設과 國公有林을 包含한 國有土地, 江·河川·湖沼 및 海域과 水域 等 國家全體의 利益을 위한 國有財産을 除外한 모든 財産과 生産手段이 私的 所有로 되어 있는 反面, 北韓은 個人의 賃金이나 分配量으로 購入할 수 있는 基礎 生必需品以外的 모든 生産物이나 生産手段이 國公有化 되어 있으며 他共產諸國에 비하여 私有的 範圍가 극히 制限되어 있는 것이 特徵이다.

北韓은 이러한 所有制度의 確立을 위해 1950年代 後半에 들어와서 모든 個人의 私有財産과 中小商工業을 “利用, 制限, 改造”라는 3段階 政策을 驅使하여 完全히 國公有化 하였으며, 土地를 비롯한 農業生産手段도 壓力과 強制手段을 動員, 國營農牧場이나 協同農場에 吸收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所有制度上的 本質的인 差異는 經濟主體의 生産活動에 參與하는 目的, 經濟機構의 組織과 機能上的 差異를 必然적으로 隨伴하게 되는 것이다.

나. 市場經濟體制와 計劃經濟體制

南北韓은 서로 相異한 所有制度를 바탕으로 각기 다른 經濟機構에 의해 運營되고 있는데 經濟組織面에서 資源의 配分 및 經濟活動이 韓國은 市場機構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反하여 北韓은 中央集權的 計劃에 의하여 劃一的으로 이루어지는 計劃經濟體制를 實施하고 있다.

經濟機構의 機能面에서 살펴 보면 韓國의 市場經濟構造가 自律的인 自動調節機能을 갖고 있는 것과는 對照的으로 北韓의 그것은 中央當局에서 一方的으로 마련한 計劃에 의하여 管理·運用되는 統制的·集權的 機能을 갖고 있다는 點이다.

韓國의 市場經濟는 經濟活動의 目的이 私的 利潤의 追求에 있기 때문에 經濟活動의 結果로서 얻어지는 剩餘 (Surplus)는 利潤으로서 私的 資本의 所有者에게 歸屬되며 이와 같은 利潤의 大部分은 經濟發展을 위한 資本蓄積을 뒷받침하는 源泉이 되고 있다.

그러나 北韓의 計劃經濟에 있어서는 經濟活動의 目的이 國家自體의 要求를 充足시키는데 있다.

北韓의 모든 經濟活動은 高度로 集權化된 中央計劃當局에 의하여 集團的으로 이루어지며 그 結果로서 얻어지는 所得도 國家全體에 歸屬되는 것이다.

따라서 市場經濟體制는 個個의 經濟主體에 대하여 自由와 平等한 權利를 重要時하는 가운데 合理的인 經濟活動이 自律的 價格機構에 의하여 反映되는 것인데 비하여 計劃經濟體制는 어느 一個人의 自由와 權利보다는 國家의 目的을 앞세우기 때문에 私的 經濟主體가 孳生되

더라도 強力한 中央計劃當局은 經濟를 主導하는 主體가 되어 全權的으로 計劃管理 하므로써 計劃當局을 除外한 모든 經濟單位들은 他律的이며 受動的인 性格을 띄고 있는 것이다.

더우기 北韓은 오늘날의 다른 共產國家들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原始的인 計劃經濟를 固守하고 있는데 이는 그 類型으로 보아 프레브노프스키 (Jan Drevnovski)가 말하는 典型的인 獨裁모델 (Dictatorship Model)에 屬한다.

한편, 市場經濟體制와 計劃經濟體制的 相異로 兩體制間에는 價格의 機能과 役割도 서로 달리하고 있다.

北韓에서의 價格은 需要와 供給에 의해 決定되는 것이 아니라 中央計劃當局에 의해 政策的으로 決定되고 있기 때문에 商品需給의 調節者的 機能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特徵이다.

따라서 經濟規模의 增大와 아울러 計劃과 管理業務의 過多로 計劃管理機構의 肥大化를 招來하였고 利潤動機의 缺如에 따라 下部生産單位의 創意와 能率을 低下시킴은 물론 計劃目標의 過多政策으로 인하여 計劃部署와 生産單位間에 摩擦을 招來 生産성이 低下되었으며 이를 克服하기 위해 思想的인 刺戟方式과 持續的인 社會主義 勞動競爭運動을 통한 生産增大를 試圖해 왔다.

그러므로 蘇聯이나 東歐諸國은 이와 같은 能率의 低下를 防止하기 위하여 1960年代 初半부터 生産活動에 利潤原理를 導入하고 決定機能을 下部機關에 分散시키는 등 制度上的 改革을 斷行해 왔으며 最近에는 中共에서 까지도 實用主義 路線의 登場으로 體制變化를 試圖하고 있다.

그러나 北韓은 아직도 1930年代에 蘇聯이 채택하였던 原始的인 中央集權的 計劃經濟體制를 固守해 왔는데 最近에 生産企業이나 工場의 獨立採算制 強化와 地方豫算制度의 採擇, 價格機能과 役割의 強調 등 生産管理面에서 部分的인 變化를 試圖하는 徵候가 보이는 것은 注目할 만 하다.

다. 開放經濟와 閉鎖經濟

南北韓의 經濟體制는 經濟開發 戰略面에서 보면 서로 그 內容을 달리하고 있다.

韓國經濟가 開放體制를 取하고 있음에 반하여 北韓은 “一國 社會主義”라는 “스탈린”方式에 따라 閉鎖體制를 固守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은 南北韓의 經濟體制를 比較 評價하여 그 實際를 理解하는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된다. 왜냐 하면 南北韓의 經濟開發은 多少의 差異는 있지만 南北韓 共히 人口에 비해 國土가 狹小하고 資源 및 蓄積資本이 不足한 條件下에서 出發하였기 때문이다.

1961年 韓國의 1人當 國民所得은 82弗에 不過하였다. 産業構造面에서도 農林·水産業이 國民總生産의 38.7%를 차지하여 生産성이 낮은 部門이 主宗을 이루고 있었으며 당장 開發할 수 있는 自然資源도 없는 어려운 條件이었다. 所得水準이 낮으니 消費의 絶對水準이 낮을 수 밖에 없었고 따라서 國內需要가 적어 産業이 擴張될 수가 없었다. 그야말로 녀시(Nurkse R.)가 말한대로 貧困하니까 더욱 貧困하여지는 “貧困의 惡循環” 그대로라고 하겠다.

이러한 與件下에서 經濟의 後進性을 脫皮하기 위하여 내세운 戰略이 바로 對外指向的 經濟開發, 즉 開放經濟를 確立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韓國은 開發初期부터 良質의 人力을 土臺로 새로운 技術을 習得하여 生産性을 向上시키고 世界市場에서 比較優位가 있는 分野를 開拓토록 經濟의 開放化를 積極的으로 推進하였으며 이것은 結果的으로 IBRD, IMF, ADB, GATT 등 國際 및 地域金融機構와 國際貿易機構와의 經濟協力關係를 크게 擴大시킴으로써, 經濟開發에 必要한 外資의 圓滑한 確保와 韓國의 國際的 地位 向上에 크게 奇與하는 한편, 지난 60年, 70年代의 刮目할만한 高度成長과 發展을 이룩하는데 原動力이 되었던 것이다.

1983年 現在 韓國이 1人當 國民所得 1,884弗에 貿易依存度는 國民總生産의 70%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輸出高 또한 245億弗에 육박함으로써 멕시코, 臺灣, 홍콩, 싱가포르와 더불어 新興工業國家(NIC: Newly Industrialized Countries)의 一員이 되기에 이른 것은 開放經濟의 成果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에 反하여 北韓은 原始的 形態의 閉鎖體制인 “아우타르키”(Autarky) 經濟體制를 固守하고 있는데, 이는 1966年 勞動黨 代表者會議에서 “社會主義 經濟建設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問題는 自力更生의 原則下에서 自立的 民族經濟를 建設하는 것이 黨의 一貫된 路線”이라고 宣言, 그들의 孤立主義的 閉鎖體制를 強調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아우타르키” 體制는 “各國은 綜合的인 産業基盤을 保障해야 한다”는 “스탈린” 式의 “一國家 社會主義”를 教條的으로 模倣한 것이며, 한편 1960年代 中盤期부터 共產圈으로부터의 援助가 激

減됨으로써 孤立的인 閉鎖體制는 한층 더 強化되었다 하겠다.

그러나 北韓의 對內指向的 成長에는 限界가 있기 마련이며, 閉鎖體制의 고수로 인한 資源不足과 技術落後는 經濟成長鈍化의 主要한 要因이 되고 있다.

北韓은 이와같은 經濟成長의 限界를 克服하고 經濟沈滯를 打開하기 위해 70年代의 6個年 經濟計劃 期間中에 對外經濟協力을 시도, 外資 및 플랜트 導入을 推進한 바 있으나 投資與件의 未備와 輸出不進 等으로 成果를 거두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70年代末부터는 外貨不足에 따른 외채상환에 커다란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 오늘의 實情이다. 이는 北韓經濟가 지금까지 지속되어온 閉鎖的 自立經濟體制의 固守로 因하여 經濟運營 能力의 未熟, 産業構造上的 缺陷 等 開放體制에 대한 適應能力이 缺如된 데에 起因한 結果이다.

2. 經濟政策의 基本方向 比較

南北韓 經濟政策의 基本方向을 보면 韓國은 經濟政策의 基本目標을 國民福祉의 向上과 自立經濟의 達成에 두고 있으며, 아울러 北韓의 對南挑發과 緊張激化 試圖에 對應키 위한 效果的 國防力 增強에 두고 있다. 이러한 目標을 達成키 위한 具體的인 政策으로서는

첫째, 安定基調 위에서의 成長追求란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石油波動으로 惹起된 지난 1973年末 以後의 國際的인 不황, 1980年의 一時的인 社會不安과 凶作으로 인한 有例없는 마이너스 成長 等 어려움에도 不拘하고 70年 以後 오늘날까지 平均 7~8%의 高度成張을 持續할 수 있었던 것이다.

둘째, 輕工業發展을 토대로 한 重化學工業의 建設促進政策을 強力히 推進함으로써 工業基盤을 튼튼히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1974년에 이미 26萬屯級の 油槽船을 建設하였는가 하면 1982년에는 輸出商品의 93.7%가 工產品으로서 産業構造 및 輸出商品構造의 高度化를 達成하였다.

셋째, 農漁村經濟의 革新的 開發政策을 追求, 1960年代에는 第1, 2次 經濟開發計劃을 通하여 農·漁村의 開發에 注力하였고, 1968年以後에는 農漁村 所得增大와 環境改善을 위하여 農外所得事業 및 새마을事業, 農漁民後繼者 育成事業을 重點적으로 推進하여 産業高度化에 따른 農村人口의 都市로의 流入을 抑制하는 가운데 農村生活의 福祉水準向上에 注力하고 있다.

네째, 國際協力을 바탕으로 한 對外指向的 工業化를 追求함이다. 그 結果 韓國은 지난 1960年代以後 획기적인 輸出伸長을 通해 높은 經濟成長을 이룩함으로써 對外 指向的 經濟政策이 韓國經濟의 發展을 主導하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北韓 經濟政策의 基本方向으로는

첫째, 閉鎖的 自立經濟體制를 固守하고 있는 것인데 北韓은 經濟體制를 社會主義的으로 改造하면서 부터 自力更生의 原則을 堅持하여 왔다. 이는 生産手段 및 消費材에 대한 內部需要를 基本的으로 自體內에서 充足시키고, 아울러 技術革命과 擴大再生産의 物質的 條件을 自體的으로 解決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自力更生의 原則, 즉 閉鎖體制的 固守는 資源과 交流에서 오는 國際分業의 利益을 얻지 못하게 되는 結果를 招來한다.

둘째, 重工業 優先政策의 繼續적인 追求이다. 本來 重工業은 1次産

業과 輕工業의 뒷받침 위에서 技術的 基盤이 마련되어야 效果的인 發展을 期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北韓은 採取工業, 金屬工業, 機械工業 等 重工業의 發展에 力量을 集中하여 왔는데 그 結果 産業間 不均衡의 深化와 資源의 浪費로 70年代 以後 長期的인 經濟成長의 鈍化를 招來하게 되었다.

北韓은 1961년부터 1970년까지 10年間 重工業과 輕工業間의 投資의 配分은 무려 8:2의 심한 不均衡을 나타냈으며, 그 後 1971년부터 시작한 6個年 經濟計劃에서도 兵力의 增強과 함께 軍需産業과 關聯된 重工業優先政策을 조금도 緩和하지 않았는데 그 結果 同計劃은 1975年 8월에 事實상 中斷되었고, 1976~77年을 産業間에 深化된 不均衡을 是正하는 “緩衝期”로 設定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오늘날 北韓은 耐乏生活에 의한 最大限의 蓄積과 軍需産業 위주의 重工業優先政策을 繼續적으로 推進함으로써 住民生活은 低位의 水準에 머물러 있다.

세째, 國防과 經濟의 竝進策을 들 수 있다. 北韓은 1962年 12月 勞動黨 第4期 5次 全員會議에서 四大軍事路線을 採擇하였으며 특히 60年代 中半期에 共產圈의 理念紛爭과 中·蘇 紛爭의 激化로 “國防部門에서의 自衛”을 提唱, “經濟發展을 遲延시키더라도 軍事力을 더한층 強化해야 한다”고 強調하고 1966年 10月 黨代表者會議에서 國防建設과 經濟建設 竝進策이 公式化되어 오늘날에 이르렀다.

그러나 經濟發展과 軍事力強化를 同時에 追求하려면 資源의 歪曲配分에서 오는 浪費를 감수해야 되며 그 結果로 北韓 住民들에게 極度の 耐乏生活을 强要하고 있음은 물론 끝없는 社會主義 勞力競爭運動을 통해 住民生活의 犧牲을 招來하고 있는 것이다.

Ⅲ. 南北韓 經濟開發의 成果 比較

1. 分斷 直後의 產業與件

1945年 8.15解放 以前 韓半島의 經濟는 日本의 植民地 政策에 따라 獨立된 經濟體制로서의 有機的 構成을 갖지 못하였다. 解放과 더불어 日本의 企業家, 管理人 및 技術者들의 撤收가 뒤따랐고, 그들이 남기고 간 産業施設마저 제대로 稼動이 되지 못하게 되었음은 당연한 歸結이라 하겠다.

더우기 38線을 境界로 한 南北分斷은 그 停滯狀態를 深化시켰다. 8.15當時 南北韓의 産業配置는 南農·北工으로 불리울 만큼 特徵的으로 區分되어 있었다. 즉 北韓地域은 相對적으로 豊富한 地下資源과 水力資源을 利用한 金屬, 化學工業 등이 配置되어 있었던 반면, 南韓地域은 주로 農業地帶로서 약간의 輕工業施設이 分布되어 있었다.

따라서 南韓地域에서 必要로 하는 電力, 中間材의 相當量을 北韓地域에서 供給받고 있었으며, 北韓地域에서 不足한 食糧은 南韓地域에서 供給하는 등 地域的 補完關係가 이루어져 있었다.

그러나 國土兩斷에 따라 이러한 補完關係가 깨어지면서 南韓의 産業은 北쪽의 電力 및 原料供給源을 잃게 됨으로써 北韓보다 더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특히 北쪽으로 부터의 送電中斷으로 말미암아 京仁工業地帶에서는 所要電力의 約 70%가 不足하여 工業生産의 극심한 萎縮을 가져오게 되었던 것이다.

이밖에 南韓의 産業을 麻痺시킨 또 하나의 重大한 要因은 解放後

의 政治的, 社會的 混亂이다. 歪曲된 自由의 亂舞, 左右翼 政黨間의 鬭爭과 罷業騷動 등으로 政治的, 社會的 混亂은 그 절정에 達한 듯 한 느낌을 주었다. 企業家들은 長期的인 生産計劃을 세울 意慾을 잃고 있었으며, 短期的인 商業利潤이나 投機를 追求하는데 急急한 狀態였다.

1947 年에 實施된 朝鮮銀行의 한 調查結果는 上記 諸要因에 의한 産業活動의 沈滯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다. 企業體數가 1947 年에는 10,065 個였던 것이 解放當時에는 折半 以下인 約 4,500 個 業體로 줄어 들었으며 雇傭人員도 約 41% 程度 減少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1948 年 南韓의 製造業 生産水準은 1939 年 生産의 約 15%에 지나지 않았다. 部門別로는 農機構를 비롯한 機械生産이 約 70%, 化學品 95%, 纖維製品 60%, 食料品이 80% 減少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鑛業生産도 資金 및 技術 不足 등 要因으로 痲痺狀態에 빠져 있었고 다만 重石鑛의 生産은 國際的 需要의 增加에 따라 增産되었으며 한편 國內需要의 增加로 無煙炭鑛의 開發이 增大되었을 따름이다.

이와 같은 鑛工業 生産의 激減은 需要와 供給의 深刻한 不均衡을 招來하여 通貨量의 膨脹과 함께 惡性 인플레이의 要因이 되었다. 그런데 農業生産에 있어서만은 대체로 해방전의 水準을 維持했으나 北韓住民의 越南 등 人口增加로 不足한 食糧을 外國으로 부터 導入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편 蘇聯軍이 진주한 38度 以北의 北韓地域에서는 日本이 남기고 간 重要産業을 國有化하였으나, 管理人 및 技術者의 不足 등으로 이

를 復舊, 整備하는데 많은 期間이 所要되었다. 즉 1947 年에 第 1 次 1 個年計劃, '48 年에 第 2 次 1 個年計劃, 1949~50 年에 第 1 次 2 個年計劃을 實施하였다. 그 結果 北韓의 工業生産은 1959 年에 이르러 비로스 1944 年의 水準을 回復하였다.

2. 6.25 動亂과 戰後 産業復舊

6.25 動亂으로 諸般 産業施設과 道路交通 및 港灣施設들이 破壞되고 既存의 生産組織과 流通秩序가 무너짐에 따라 産業生産은 매우 低調하였다. 農業部門에 있어서도 肥料의 供給 등이 圓滑치 못한 데다가 新品種의 開發같은 것은 생각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그 당시의 主宗産業인 農業部門의 生産마저 저조하였다. 韓國에 있어서 總財貨 生産의 約 70%를 占하였던 農業生産, 특히 米穀이 1951~52 년에는 平年作의 3分の 2 水準의 生産에 不過하였다. 水産物도 生産量도 動亂이 勃發한 1950 년에는 激減하였으나 그 다음 해부터는 從前의 生産實績을 回復하였다.

以上과 같이 産業의 生産活動이 低調한 데다가 政府의 戰費調達로 인한 通貨膨脹으로 物價는 急騰하였다. 動亂中 美國을 비롯한 國際聯合의 緊急救護物資 爲主의 援助가 繼續되어 物資缺乏을 緩和하긴 하였으나 需要量을 充足시킬 程度는 되지 못하였던 것이다. 休戰以後 産業復舊事業도 主로 美國의 援助에 의해 推進되었다.

1954~59 年의 戰後 復舊期間에 韓國이 美國 등 友邦과 國際機構로부터 받은 援助의 總額은 約 27 億弗에 達하였으며 이는 期間中 總投資額에

대하여 約 70%를 擔當해 준 結果가 된다. 즉 이 期間中에 이루어진 總投資中 國內貯蓄으로 充當된 것은 3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外國의 援助에 依存하였다.

休戰後 美國의 對韓 援助는 6.25 動亂으로 말미암아 황폐화된 韓國 産業의 復舊와 그 後의 發展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忠州肥料工場, 仁川板유리工場 및 문경시멘트工場的 建設 등이 이를 代表하고 있다. 그 밖에 1백여량의 디젤기관차 購入, 170 마일의 新鐵道 路線의 建設과 馬山, 三陟 및 당인리 第2 火力發電所도 이 時期에 建設되었다.

한편 北韓에서는 자신이 挑發한 6.25 動亂으로 인해 각종 産業施設이 致命的인 打擊을 받았다.

이에 關係한 共產圈 資料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6.25 戰爭으로 말미암아 北韓에 있는 870個의 工場 및 企業所가 破壞 당하고 大多數의 發電所와 炭鑛, 鑛山이 操業能力을 喪失하였다. 따라서 戰爭의 마지막 해인 1953年の 鑛工業 生産은 1949年 水準과 比較할 때 64%까지 低下되었고, 특히 生産財를 生産하는 部門의 水準은 42%까지 低下되었다. 北韓은 6.25 動亂이 끝난 1954年에 3個年 經濟計劃을 樹立하고 戰亂으로 破壞된 産業施設을 復舊함으로써 産業生産을 1949年の 水準으로 回復하는데 全力을 다하였다. 이 戰後復舊 3個年計劃은 蘇聯, 中共 등 東歐共產諸國으로부터의 經濟 및 技術援助와 勤勞者, 農民들의 勞力을 土台로 計劃目標가 達成되었다고 北韓은 發表하였다. 이 計劃期間을 통하여, 거둔 成果로서는 破壞된 産業施設, 특히 重工業基地의 復舊建設 以外에 社會主義的 經濟形態를 強化한 것이었다. 사실상 이 計劃期間中 가장 중요한 特

微的 變化의 하나로 社會主義制度의 強化에 따른 産業構造의 현저한 變化를 들 수 있는데 이를 部門別로 보면 다음과 같다.

1949 年의 鑛工業 生産額中 國營 및 協同團體의 生産比重은 90.7 %였으나 1955 年에는 98.3 %로 높아졌으며 鑛工業部門의 民間生産은 주로 手工業的 日用品, 小規模의 精米所, 打綿業, 建材業에 한정되었다. 또한 農業 總生産額中에서 國營農牧場과 農機械賃耕所를 包含한 社會主義的 部分이 차지하는 比重은 1949 年에는 3.2 %에 不過했다.

그런데 1954~58 年에 集團農場化를 施行함으로써 協同農場과 國營農牧場의 生産比重은 절대적인 優位를 차지하게 되었다.

한편 商業部門에 있어서도 1949~1955 年에 國營 및 協同團體 商業의 比重이 현저히 提高되었다. 즉 小賣商品 流通額中에서 차지하는 그 比重은 56.5 %에서 84.6 %로 높아진 반면, 個人商業은 15.4 %로 萎縮되었다. 이 3 個年計劃 期間中에는 北韓은 重工業의 優先的 發展과 輕工業의 急速한 復舊發展을 圖謀한다는 基本政策에 따라 基本建設投資를 工業部門에 集中하여 大規模 工場의 復舊建設과 技術人力養成에 注力하였다. 그 結果 工業部門 生産은 1949 年 水準에 接近하게 되었으며 工業部門에 從事하는 人口 構成比도 높아졌다. 따라서 計劃期間中 鑛工業部門은 이례적인 높은 成長을 達成했으나 滿足할 만한 것은 못되었다.

왜냐하면 計劃의 初期 年度에 있어서의 鑛工業生産의 成長率은 매우 높았으나 마지막 年度에 가서는 相對적으로 減退하는 推移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즉 年度別 鑛工業生産의 成長率을 보면 1954 年에 51 %, 1955 年

에 52%, 1956년에 27%로 半減되고 있다.

한편 農業部門에서는 穀物生産을 戰爭以前 水準으로 끌어 올리려던 當初 設定한 目標을 達成할 수가 없었다. 計劃目標 自體가 非現實的이라고 해서 3次에 걸쳐 修正했을 뿐만 아니라 計劃에 비해 37%나 더 많은 資金을 投入했음에도 不拘하고 實績은 結局 計劃에 未達하였다.

3. 經濟的 成果

가. 産業開發計劃과 그 成果

1962년부터 計劃的인 經濟開發에 着手한 韓國은 第1次 計劃期間에 年平均 7.9%, 第2次 計劃期間에 9.6%, 第3次 計劃期間에 9.8%로 成長을 加速化하면서 1962~79년에 平均 9.2%의 高度成長을 持續하여 왔다.

1980年代에 들어와서는 世界經濟 不況의 餘波로 마이너스成長을 記錄하는 등 어려움을 겪은 바도 있지만 扎实的 安定化 施策에 힘입어 安定的인 經濟基盤을 굳혀 나가고 있다.

그런데 韓國은 自由經濟體制를 基本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 經濟開發計劃은 市場經濟를 바탕으로 하여 國民經濟가 나갈 方向을 이끌어 준다는 點에서 어디까지나 誘導計劃(Inductive plan)으로서의 性格에 그치고 있다. 즉 이 誘導計劃은 처음부터 計劃目標와 이를 達成하기 위한 手段을 分明히 하고 이의 推進主體가 政府가 되는 共

産國家의 統制計劃 (Control Plan) 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韓國의 經濟開發 5 個年計劃의 推進過程을 살펴보면 第1次計劃(1962~66年)에서는 政府가 큰 役割을 擔當하였다. 電力, 鐵道, 港灣, 通信 등 社會間接資本을 擴充함으로써 開發基盤을 構築하는데 注力하였기 때문에 많은 部分이 政府에 의하여 推進되어야 하였다.

따라서 計劃內容 自體도 物量目標와 推進手段들이 名記되는 多분히 具體的인 物量計劃이었다. 그러나 漸次 經濟規模가 擴大되고 複雜化되어 民間部門의 領域이 擴大되면서 計劃自體의 性格이 보다 추상화되어 誘導計劃 形態로 變貌해 갔던 것이다.

이처럼 第1次計劃 期間에는 隘路部門의 打開을 위한 開發投資를 擴大하면서 한편으로는 輸出增大와 輸入代替産業의 育成에도 注力하였다. 第2次計劃期間(1967~71年)에는 電子工業, 石油化學工業의 開發 등을 통한 工業의 高度化와 輸出産業 主導의 高度成長, 高米價 政策에 따른 農業所得의 增大를 기하였다.

第3次計劃期間(1972~76年)에는 劃期的인 造船施設의 擴充, 綜合製鐵所의 完工, 石油化學工場의 建設擴大 등 重化學工業의 發達을 통해 工業構造를 高度化시켰다.

또한 四大江 流域開發을 비롯한 國土의 綜合開發에 着手하였으며 새마을運動을 통한 農漁村의 環境改善과 所得增大로 農漁村 近代化에 새로운 章을 열었다.

第4次計劃期間(1977~81年)에는 機械, 電子, 造船을 中心으로 하는 技術 및 熟練勞動, 集約的 産業의 比率을 보다 높여서 産業構造를 高度化하는 한편 그동안의 開發成果를 바탕으로 하여 綜合的이고 體系的

인 社會開發을 推進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韓國經濟는 1980年에 들어서서 부터 對內外 環境의 惡化로 어려움을 當하기 시작하였다.

1979年初 이란의 回教革命에서 비롯된 第2次 石油波動과 이에 따른 世界景氣의 沈滯 등 對外 經濟與件이 惡化되었고 1980年에는 미 증유의 農作物 凶作까지 겹치어서 對內經濟가 沈滯局面에 접어들므로써 마이너스成長, 높은 物價上昇, 國際收支의 惡化라는 所謂 三重苦의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다.

다행히 1980年以後부터는 다소의 起伏과 不均衡이 있기는 하였지만 이러한 어려움에도 서서히 벗어나 꾸준한 回復勢를 보이고 있다.

以上과 같이 韓國經濟는 20餘年間の 計劃的인 開發期間을 통하여 後進農業國으로 부터, “新興工業國(Newly Industrialized Country)”으로 急速히 탈바꿈하였는데 이에는 韓國 나름대로의 工業化戰略과 對外指向的인 開發戰略이 實效를 거둔 結果라 하겠다.

即 韓國은 開發初期에 計劃을 推進함에 있어서 自由企業의 原則을 土臺로 하되 基幹産業과 그밖의 重要部門에 대해서는 政府가 이에 關與하거나 間接的으로 開發을 誘導하는 方向으로 나갔다.

그리하여 政府는 社會間接資本을 擴充하여 民間企業의 投資環境을 造成하고 不足한 投資財源의 圓滑한 調達을 위하여 外資導入體制를 確立하였으며 國際協力の 擴大와 함께 貿易面에서도 輸出伸張에 注力하면서 輸入自由化의 幅도 늘려 나가는 開放體制로 行하였다. 이에 反하여 北韓은 全面的인 中央集權的 計劃經濟 내지 指令經濟體制를 運營하고 있으며 原始形態의 閉鎖的인 自給自足 經濟體制 (Autarky)를 固守하고

있다.

北韓은 1947년부터 經濟計劃을 實施하여 왔으나 中央集權的인 計劃經濟形態가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은 1957~60년의 第1次 5個年計劃부터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958年末 生産手段에 대한 社會主義化가 完成된 後부터 個人的 自由意思에 基礎한 生産活動이 일체 否認되고 “人民經濟運營에 勞動黨의 意思”가 組織的으로 作用하는 段階에 이르렀다.

1958年以來 北韓은 中央集權的 計劃機構를 設置하고 自由市場이나 競爭價格을 否定한 土台위에서 生産財의 割當制, 消費財의 配給 등 모든 經濟活動을 中央으로부터의 命令에 따르는 “指令經濟體制”로 轉換시켰다. 北韓의 中·長期計劃에서는 社會總生産 및 主要 産業別 生産의 增加, 社會總生産의 投資, 消費 및 軍事支出, 重要財貨의 生産目標 등이 提示된다. 그리고 이를 基礎로 하여 年次別 計劃이 作成된다. 年次別 計劃에서는 모든 財貨와 企業所에 대한 生産活動目標와 生産指令이 包含되며, 資源의 用途別 配分이 提示된다.

北韓의 産業開發計劃은 그 經濟發達 程度에 따라 對別해 보면 다음의 3段階로 區分된다. 즉 1945~60年, 1961~70年, 그리고 1971年以後의 3段階이다.

第1段階인 1945~60年은 共產 괴뢰政權의 樹立, 6.25 動亂, 戰後復舊를 거쳐 計劃經濟體制를 強化한 期間이다.

그동안 國際環境은 소위 中·蘇 密月時代로 物心兩面에서 中共 및 蘇聯의 支援을 받을 수가 있었다.

그러나 第2段階인 1961~70年은 中·蘇 對立의 餘勢를 받아 前半期는 蘇聯과 對立, 後半期는 中共과 對立하는 등 共產圈의 兩大國紛

爭에 휘말려 들어간 期間이었다. 특히 그동안 쿠바 危機, 베트남戰의 影響을 받아 軍事力 增強에 狂奔한 結果 經濟建設은 순조롭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北韓은 “強力한 社會主義 工業國家로 成長했다”고 1970年 11月의 第5次 勞動黨大會에서 宣稱하는 欺瞞術을 폈다.

第3段階인 1970年 以後는 北韓이 中·蘇 對立의 틈바구니에서 소위 “主體思想”을 強調하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第3世界에 대한 外交를 積極的으로 推進하는 한편 西方世界와의 接觸을 試圖한 새로운 時代가 된다. 특히 日本이나 西歐諸國과 交流함으로써 先進設備과 技術을 導入했기 때문에 北韓으로는 바야흐로 技術革命의 推進時代가 된다. 그러나 西方諸國과의 接觸은 近代的 工場建設의 代價로서 對外債務 累積과 對外債務 償還不履行이라는 뜻밖의 事態를 招來하여 마침내 北韓經濟의 脆弱性을 드러내는 結果가 되고 말았다.

1971년부터 시작된 6個年計劃은 1975年 8月末로 사실상 中斷되었으며, 約 2年半의 調整期를 두고 1978년부터 第2次 7個年計劃이 새롭게 시작되었다. 6個年計劃期間中에 造船, 機械, 發電所 등 大規模建設과 最初의 石油化學工場 建設이 있었지만 그 裏面에는 各 産業部門間의 不均衡, 科學技術革新의 遲滯, 生産品의 높은 코스트 등 여러가지 問題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요컨대 北韓은 戰後復舊 3個年計劃과 이에 뒤이은 5個年計劃에서는 異例的으로 높은 成長을 實現했으나 그 後의 計劃들은 그 成果가 基本目標에 未達하여 蹉跌을 빚었다. 그런데 戰後의 異例的으로 높은 成長率은 6.25 動亂의 戰災로 인해 그 出發水準이 極히 낮았

기 때문인 것으로 說明된다. 第1次 7個年計劃에서는 鑛工業은 그 目標의 72.2%, 農業은 57~67%, 水産業은 50~70% 밖에는 達成하지 못했으며 同 計劃의 3年 延長期間에는 石炭과 電力만이 目標를 達成했다. 6個年計劃에서도 鐵鋼, 시멘트는 目標未達로 1年間 延長하였다.

나. 産業部門間的 構造

韓國의 工業化過程을 보면 輸入代替나 輸出에 關聯된 輕工業部門에서 出發하여 重化學工業으로 漸次 移行해 가는 方向으로 나갔다. 輕工業은 投資資本의 회임기간이 짧고 勞動集約的이며 技術習得이 容易하여 開發初期의 資本不足, 過剩人力, 技術落後 등의 與件에 비추어 當時의 設定에 알맞는 工業部門이었다. 더우기 輕工業은 輸入代替 혹은 輸出을 통해 國際收支 改善에 寄與하였는데 纖維, 合板, 신발類는 한동안 韓國의 輸出을 代表하는 工產品들이었다.

開發初期에 輕工業部門의 開發은 短期的 生産擴大 및 輸出增大에 크게 寄與하였다. 그러나 1970년에 들어서면서 다음과 같은 問題들이 提起되었다. 첫째, 原料 및 中間財 등의 對外 依存도가 深化되어 國際的인 資源波動이 일어난 1970年代 初半의 狀況下에서는 困難을 겪지 않을 수가 없었다. 둘째, 값싼 勞動力을 土臺로 한 比較優位는 우리를 뒤쫓고 있는 後發 開發途上國들에 의하여 危脅을 받게 되었다. 셋째, 輸出規模가 10億弗(1970年)을 넘어서자 새로운 輸出商品의 開發이 要請되었다.

즉 輕工業製品 爲主의 輸出體制는 限界를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60年代에 重點開發되었던 纖維, 合板, 신발類 등의 輕工業은

高級化로 繼續 發展시키면서 보다 技術集約的인 새로운 産業의 開發이 要請되었다.

韓國의 第3次 5個年計劃에서는 重化學工業을 建設하여 工業構造의 高度化를 기한다는 것이 그 重點目標의 하나로 登場하였다.

이를 위해 所謂 重化學工業 開發計劃이라는 것을 비로소 作成하였다. 이때 重點開發하기로 決定한 重化學基幹産業은 6個部門이었다. 鐵鋼, 機械, 自動車, 電子, 造船, 石油化學 등이 이에 屬한다. 重化學工業의 開發은 輕工業部門에 比하여 一般的으로 資本, 技術이 더 要請되고 市場 등에서 危險負擔이 더 크게 된다.

따라서, 開發初期의 制限된 資本, 落後된 技術水準 및 不確實한 市場展望 등을 가지고는 이 部門의 開發을 着手할 수 없었을 것이다.

韓國의 境遇 60年代 10年間의 産業開發 經驗을 土台로 하여 工業構造의 高度化를 위한 重化學工業의 開發戰略을 70年代初에 採擇한 것은 時宜에 맞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겠다.

이와 같은 開發戰略을 採擇한 結果 그동안 韓國의 産業構造는 크게 改善되었다. 1961년에 國民總生産에 대한 農林·水産業의 比率은 40%, 工業의 比率이 13%로 後進國의 典型的인 産業構造를 지니고 있었다.

그런데 22년이 지난 1983년에는 國民總生産에 대한 農林·水産業의 比率은 14.2%, 鑛工業의 比率은 29.4%, 社會間接資本 및 其他 서서비스의 比率은 56.4%를 차지하게 되었다. 더우기 1970年代에 들어서서는 重化學工業의 發達에 따라 工業構造도 急速히 改善되어 갔다.

重化學工業 對 輕工業의 比率은 1970年の 40% 對 60%에서 1979년에는 51% 對 49%로 높아졌다.

北韓의 産業은 重工業優先의 政策基調下에서 軍需關聯工業의 發達에 偏重한 結果 여러 産業部門사이에 不均衡이 擴大되어 이에 따라 마침내 成長을 制約하는 隘路部門이 發生하고 있다.

北韓의 年平均 總投資額 가운데서 鑛工業部門에 대한 投資 比重은 戰後復舊 3 個年計劃 (1954 ~ 56 年) 에서는 49.6%, 第 1 次 5 個年計劃 (1957 ~ 60 年) 에서는 51.3%, 10 個年計劃 (1961 ~ 70 年, 第 1 次 7 個年計劃 및 그 3 年 延長) 에서는 60%에 達했다. 이같은 鑛工業 投資額의 構成을 보면 重工業이 壓倒的인 比重을 차지했다. 重工業과 輕工業 사이의 相對的 比率은 1954 ~ 56 年에는 81.1% 對 18.9%, 1957 ~ 60 年에는 82.6% 對 17.4%였다.

60 年代 前半期에 北韓은 7 個年計劃의 基本課題의 하나로 “ 住民生活의 向上 ” 을 내세워 輕工業에 對한 關心을 가졌다.

그러나 이 時期에 輕工業에 대한 年平均 投資比率은 28%에 불과했는데 이는 60 年代에 내걸었던 이른바 “ 經濟와 軍事建設의 並進路線 ” 을 그대로 견지했기 때문이었다.

즉 그 並進策으로 말미암아 軍事支出이 大幅 增大되고 보니 주로 輕工業分野에 돌아갈 投資의 몫이 상대적으로 減少되지 않을 수 없었다.

다. 南北韓 GNP 增加 推移 比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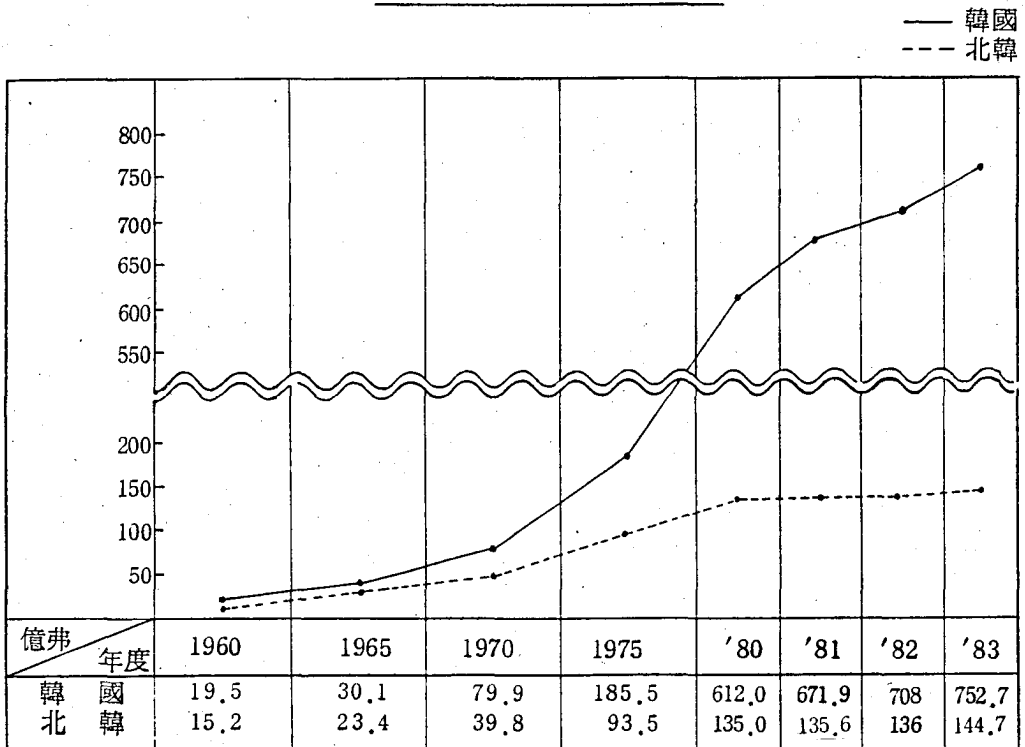
以上과 같이 南北韓은 各各 獨自的인 經濟發展을 추구해 왔는데, 이를 GNP 의 성장추세를 통해 動態的으로 살펴보면 韓國이 1962 年부터 經濟開發計劃의 成功的 推進으로 總量面에서 급격한 成長趨勢를 보여주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北韓은 아직까지도 經濟的 沈

滯現象을 탈피하지도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北韓이 私的所有 否認으로 비롯된 勞動意欲 喪失, 技術落後 등으로 인해 低生産性を 면치 못하고 있고 더우기 閉鎖體制의 固守로 對外經濟協力과 先進資本 및 技術導入이 여의치 못한데다가 軍需産業 위주의 重工業 優先政策을 무리하게 推進하여 産業間의 심한 不均衡을 招來하였기 때문에 빚어진 당연한 귀결인 것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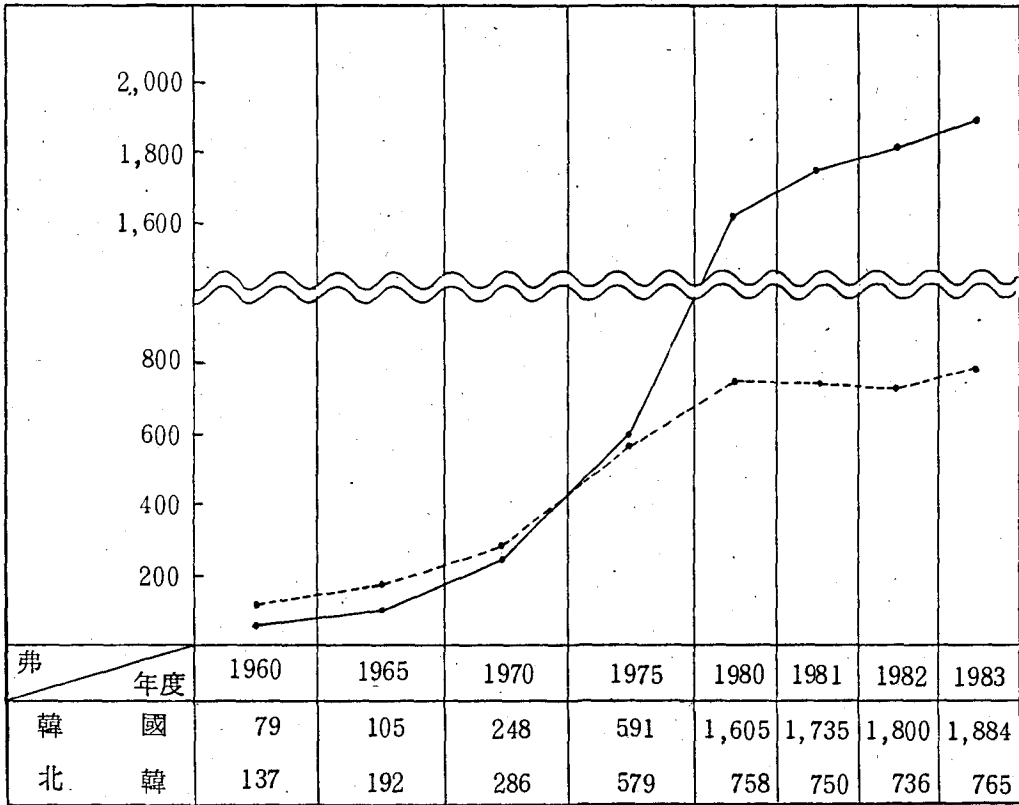
南北韓 總量規模의 增加推移는 人口 1人當 GNP에 있어서도 많은 變化를 가져왔는데 韓國은 지난 1974年度를 分岐點으로 하여 1人當 GNP가 北韓을 능가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격차 또한 커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

南北韓 GNP 增加 推移



南北韓 1人當 GNP 變化 推移

— 韓國
 - - - 北韓



Ⅳ. 主要 部門別 現況 比較

1. 總量部門

가. 人口 및 領土

南北韓의 人口는 1983年 年央人口 (Midyear Population) 基準으로 韓國이 3,995萬名, 北韓은 1,890萬名으로 推定되고 있다.

人口增加率은 韓國이 1.57%, 北韓은 2.23%로서 韓國보다 北韓이 상당히 높다. 經濟活動人口는 韓國이 1,513萬名으로 總人口의 37.9%, 14歲以上 人口對比의 經濟活動 參加率은 55.8%이며, 北韓은 經濟活動人口가 840萬名으로 總人口의 44.4%, 經濟活動 參加率은 68.3%에 이를 것으로 推定된다.

北韓의 經濟活動 參加率이 韓國보다 高率인 理由는 1970年 11月 第5次 黨大會에서 “女性들을 부엌으로부터 解放시킨다”는 政策決定에 따라 거의 大部分의 家庭主婦가 生産活動에 從事하게 되었고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라”는 黨의 方針에 따라 社會扶助의 對象인 老人들도 거의 大部分이 勞動에 從事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北韓은 78萬名에 達하는 正規軍과 10萬餘名の 警備隊를 保有하고 있고 特別獨裁 對象區域 및 教化所에 收容되어 있는 收容者가 많아서 이 部門에서의 非經濟活動人口의 幅이 크기는 하나 家庭主婦가 強制的 就業과 죽을 때까지의 勞動義務 遂行에서 招來되는 要因이 더욱 크기 때문에 相對적으로 北韓의 經濟活動 參加率은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北韓은 이와 같은 높은 經濟活動 參加率에도 不拘하고 勞動生産性에

있어서는 極히 낮은 水準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體制内部의 構造的 問題點과 科學技術水準의 落後와 産業設備의 老朽化에 起因하는 것이다.

그 外에도 北韓은 原料, 燃料의 不足으로 工場·企業所가 頻煩히 操業을 中斷하고 있고 設備 및 裝備의 故障으로 稼動을 中斷하는 事例가 많아 勞動力 過剩現象과 潛定的 失業狀態를 誘發시키고 있다. 지금 北韓은 이 問題의 解決을 爲하여 “四大 自然改造事業”이라는 名目下에 剩餘勞動力을 西海岸의 干拓地開墾과 野山 및 遊休地 開發에 集中 投入하고 있으나 投資財源 不足으로 實效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國土面積은 韓半島 全體가 22萬餘km²인데 이중 韓國은 9萬9千km²이고 北韓地域은 12萬2千餘km²로서 韓國이 總面積의 45%, 北韓이 5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國土의 利用面에 있어서는 韓國은 平野地帶가 많고 氣候條件이 좋아서 農業生産과 交通運輸面에서 有利한 立地條件을 갖추고 있어 國土의 綜合的 利用과 開發로 全天候 農業 施設을 擴充하였고 全國이 1日生活圈에 屬하는 高速道路網이 完成되는 等 國土를 效率的으로 利用하고 있다.

이에 比해 北韓은 國土利用에 不利한 山岳地帶가 많고 狼林山脈을 分岐點으로 東西地域이 分離되어 있는 데다 東, 西海岸마저 分離되어 있는 等 不利한 條件으로 國土開發이 綜合的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地下資源에 있어서는 大部分의 有用資源이 北韓地域에 偏在되어 있고 水資源도 豊富하므로 工業의 立地條件은 韓國보다 다소 有利한 立場이라 하겠다.

나. 國民總生産

南北韓의 總量規模를 比較하면 1983年 現在 韓國은 GNP가 753億弗이며 1人當 GNP는 1,884弗의 水準에 이르고 있는데 比較해 北韓은 GNP가 144.7億弗, 1人當 GNP는 765弗로 GNP는 韓國이 北韓보다 5.2倍, 1人當 GNP는 2.5倍 높은 水準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經濟總量規模의 顯著한 差異는 韓國經濟가 60年代 以後 高度成長을 持續하였고, 1973~74年, 1978~79年の 世界的 不況에도 不拘하고 이에 適切히 對應하여 온 反面에 北韓은 資本의 浪費와 非效率的인 投資로 慢性的인 經濟沈滯 局面에 處하게 된 것이다. GNP에 대한 軍事費 負擔率은 韓國의 경우 1983년에 5.8% 수준으로 一般的인 경향으로 볼 때 다소 높은 편이기는 하지만 北韓의 경우는 23.5%로 世界에서 이스라엘 다음으로 높은 水準을 維持하고 있다. 軍事費 負擔은 經濟成長面에서 볼 때 生産的인 支出이 아니므로 軍事費 負擔이 많은 만큼 成長의 潛在力은 蠶食되고 따라서 沈滯의 根本的인 要因이 되는 것이다.

主要 總量 指標

(1983年 現在)

區 分	單 位	韓 國	北 韓	備 考 (韓 國 : 北 韓)
人 口	千名	39,951	18,902	2.1 : 1
人 口 增 加 率	%	1.57	2.23	-
經 濟 活 動 人 口	千名	15,128	8,400	1.7 : 1
面 積	km ²	99,022	122,098	1 : 1.2
G N P 億 弗	億弗	753	144.7	5.2 : 1
1 人 當 G N P 弗	弗	1,884	765	2.5 : 1
經 濟 成 長 率	實質 %	9.5	4.3	-
軍 事 費 對 G N P	%	5.8	23.5	-

2. 財政規模

가. 南北韓 財政制度의 特徵

韓國은 私有財産制度와 民間經濟活動이 主軸을 이루고 있고 또한 國民經濟中 그 比重이 크기 때문에 財政의 國民經濟에서의 比重은 相對的으로 적다. 1983年 決算豫算의 境遇 全 會計中 一般會計 規模는 131.2 億弗이며, GNP 753 億弗에 對比한 財政負擔率은 17.4 % 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比하여 北韓의 財政은 經濟活動의 모든 部門을 反映하며 統制하는 機能을 가지므로 財政의 役割은 中央集權的 統制經濟를 遂行하여 나가는데 있어서 가장 重要한 手段이 되고 大部分의 人民經濟 活動은 財政需要에 依하여 充足되고 있다.

따라서 北韓의 財政規模는 決算基準으로 1983年의 경우 110.2 億弗이며 財政負擔率은 76.2 %에 達하고 있는 바 이것은 同年 韓國의 財政負擔率 17.4 %에 比하면 상당히 높은 것으로서 共產主義財政의 特徵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 하겠다.

나. 歲 出

1983年度 韓國의 一般會計部門 歲出規模는 10兆1,807億원으로 131.2 億弗 規模이고 部門別 歲出構成比는 一般行政費 10.8 %, 防衛費 33.0 %, 開發費 44.8 %, 地方財政交付金 및 其他가 11.4 %를 차지하고 있다.

公式 發表된 北韓의 歲出規模는 北韓貨로 240 億원 (110.2 億弗)으로 서 그 構成比는 人民經濟費 61.9 %, 社會文化施策費 21.4 %, 軍事費

14.8%, 機關管理費 1.9%로 構成되어 있으나 軍事費의 一部分 人民經濟費 또는 社會文化施策費에 隱蔽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여 보면 實質軍事費는 30.9%로 評價된다.

1966년부터 公式 發表된 北韓의 歲出構成比를 살펴보면 재미있는 現象을 發見할 수 있다. 즉 1966년의 경우 人民經濟費가 68.4%, 軍事費가 10.0%이었으나 1967년부터 1971년까지는 人民經濟費가 44~50%로 減少되고 軍事費가 일약 31~32%로 크게 增加되었으며 1972年 以後에는 다시 人民經濟費가 55% 以上으로 늘어나면서 軍事費는 15~17% 水準으로 激減되고 있다.

이와 같이 軍事費가 時期에 따라 크게 變化하는 것은 必要에 따라 軍事費가 他費目에 隱蔽되고 있다는 事實을 말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966년까지 “民族保衛費”라고 부르면서 10% 以下로 發表해 온 軍事費를 1967年 “國防費”로 改稱하고 그 構成比를 30.4%로 大幅 增加시켜 發表한 것은 從前에 人民經濟費 등에 隱蔽했던 것을 現實적으로 드러내 놓은 것으로서, 60年代 中·蘇紛爭이 激化됨에 따라 北韓이 獨自路線을 標榜하면서 南侵野慾을 露骨化한데 起因한 것이다.

그후 1972년부터 갑자기 軍事費가 折半으로 減少되고 人民經濟費가 다시 增加한 것은 東西和解와 南北赤十字會談 等 南北間의 接觸에 따라 對外宣傳을 考慮하여 “平和이미지” 부각을 爲해 軍事費를 他費目에 다시 隱蔽시켰기 때문이다.

그 實證的인 證據로는 1972年 以後 人民經濟費가 急增하였음에도 不拘하고 北韓經濟의 成長은 鈍化되었고, 그렇게 軍事費가 減縮되었음

에도 戰爭準備를 爲한 人的, 物的 動員이 強化되었음이 이를 反證하는 것이라 하겠다.

다. 歲 入

韓國의 財政收入은 租稅, 專賣益金, 稅外收入, 其他로 構成되고 있으며 1983年 이의 構成比는 各기 85.8%, 7.7%, 3.6%, 2.9%로서 租稅收入이 大종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北韓의 歲入은 社會主義의 經理收入金으로 全 歲入豫算을 充當하고 있다.

北韓은 生産活動에 隨伴되는 收入이 全部 財政收入이 되는데 이는 財政規模가 GNP의 77%内外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아 알 수 있다.

社會主義 經理收益金の 內容은 去來收入金, 國家企業利益金, 協同團體 所得稅, 其他 收入으로 構成되고 있는데 各各 項目別 內容은 다음과 같다.

첫째, 去來收入金은 社會主義 經理收益部門의 55% 以上을 占하고 있는 가장 主要한 것으로 “社會 純所得部門中 國家의 中央集權의 純所得에 屬하는 社會主義經濟에서 派生된 國家利潤의 한 部分”이라고 定義하고 있는 바 이러한 說明에 따르면 一般的으로 理解하고 있는 우리의 間接稅와는 根本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即 모든 生産手段과 財貨가 社會化되어 있고 經濟活動 역시 國家의 唯一的인 計劃下에 움직이는 北韓에서 流通過程을 通해 거두어 들이는 收入은 國家의 利潤이지 稅金이 될 수 없다는 論理인 것이다. 去來收入金은 生産物價格에 一定한 比率로 미리 固定되어 있는 것으로서 主로 最終生産物의 消費價格에 賦課되어진다. 中間生産物인 一部 生

産手段의 價格에도 賦課되고 있으나 이 경우는 中間生産物의 性格이 最終生産物의 性格을 띤 것이기 때문에 二重으로 計定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둘째, 國家企業利益金은 獨立採算制에 依하여 運營되는 各種의 企業所 및 生産工場에서 一定期間에 얻어진 利潤中 一定比率의 自體經費를 控除한 殘餘基金을 中央當局에 納付하는 것으로서 總豫算 收入의 30% 内外를 차지하고 있다.

셋째, 協同團體所得稅란 各種 協同團體의 生産活動에서 얻어진 收入中 一定比率를 中央에 納付하는 것을 말한다.

끝으로 其他收入金은 減價償却回收金 및 罰課金, 關稅, 援助收入 등으로 構成되며 歲入總額의 7~9%를 차지하고 있다.

그밖에 勤勞所得稅, 文藝所得稅, 地方自治稅 등이 1974年까지는 歲入의 2% 程度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1975年부터 이것을 撤廢, “稅金이 없는 唯一한 나라”라고 内外에 宣傳하고 있다.

이는 住民들이 直接 負擔하는 所得稅와 住民稅 등은 稅金이지만 社會主義 經理에서 얻어지는 收益은 主人인 國家가 마땅히 차지해야 하는 利潤의 一部이기 때문에 결코 稅金이 아니라는 論理에 根據한 것이다.

3. 農水産業

가. 農業構造의 比較

韓國은 60年代 中盤以後 重農政策을 推進하여 쌀·보리의 自給과 農家所得의 顯著한 增加를 이룩하였다.

70年代에 들어와서 第3次 計劃期間中에는 全 産業이 年平均 11

%의 高度成長을 이룩하였고 農林, 水産業도 5.8%의 높은 成長率을 記錄하였는데 이는 土地面積의 制約에도 不拘하고 科學的인 營農技術을 導入한 데 起因한다.

그러나 農業生産의 自然的 制約과 工業部門의 高度成長의 結果, 韓國의 産業構造에서 차지하는 農業의 比重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趨勢에 있다. 즉 農水産業部門 生産이 國民總生産에서 차지하는 比率이 60年代에는 約 36%이던 것이 70年代에는 25%, 1983년에는 16.3%로 減少되었다.

北韓은 營農體系의 集團化에서 오는 生産減退 現象을 脫皮하기 爲해 이른바 “分組 都給制”를 實施하고 있는데 이는 15~20名으로 構成된 分組責任아래 모든 生産活動을 責任지게 하여 低調한 生産實績을 높여 보고자 한 것이다.

이에 반해 北韓은 불리한 자연조건과 農業集團化에서 오는 生産性 低調, 營農技術의 落後 등으로 農業生産이 不振한 實情에 처해 있으며, 1983年度末 社會總生産에서 차지하는 農産物의 生産比重은 5%水準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나. 農業生産의 基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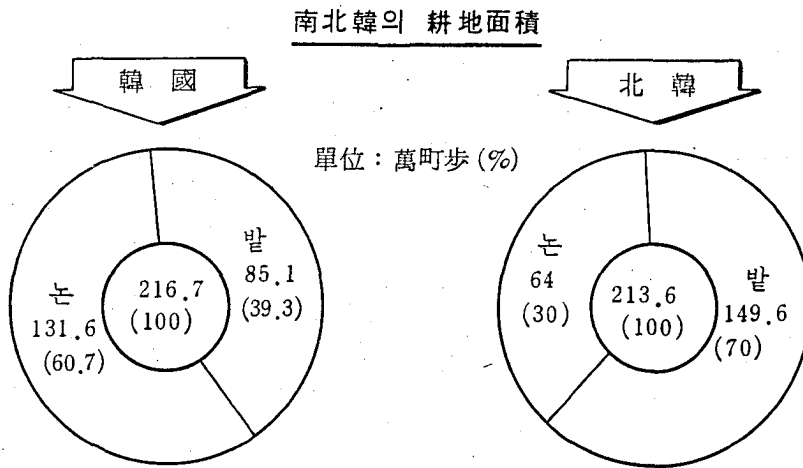
1983年 現在 韓國의 耕地面積은 216.7萬町步로서 全體面積의 21.9%를 차지하고 있으나 北韓은 213萬町步로 全體面積의 17.5%를 占하고 있어 耕地面積이나 耕地率이 모두 韓國보다 열세에 놓여 있다.

南北韓 耕地面積의 隔差는 1970年代에 들어서면서 점차 縮少되는 傾向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原因은 韓國의 耕地面積이 經濟發展에 따

은 都市化 및 工業化의 進前에 따라 農耕地가 工場敷地, 道路建設, 都市 擴張 等에 蠶食되고 있기 때문이다.

南北韓의 耕地面積을 논과 밭으로 區分해 살펴보면 韓國은 논이 全體 耕 地面積의 60.7%인 131萬 6千町步, 밭이 39.3%인 85萬千町步이나 北 韓은 이와 對照적으로 밭이 149萬 6千町步로서 70%, 논이 64萬町 步로 30%를 차지하고 있다.

논面積이 적은 北韓은 논의 面積을 늘리기 위해 1976年 10月 黨 5期 12次 全員會議에서 “自然改造 5大方針”을 採擇, 干潟地 開墾과 土 地整理로 논의 面積을 늘리려 하고 있으며 最近에 이르러서도 4大 自 然改造事業을 大的으로 벌리고 있으나 資本不足으로 소기의 成果를 얻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南北韓 農業人口는 1983年 現在 韓國이 948萬名으로 全人口의 23.7%에 該當하며 農家戶數는 200萬戶이다.

北韓의 境遇는 農業人口가 719萬名으로 全人口의 38%를 維持하고 있고 農家戶數는 146萬戶로 推定된다.

따라서 農家戶當 耕地面積은 韓國이 1.08 町步인데 比해 北韓은 1.47 町步로 다소 높은 편이다.

農業의 機械化를 보면 韓國의 境遇 70年代 中盤以後 持續的인 重工業部門의 發展에 힘입어 農業機械化가 急速히 推進되었다.

1983年 現在 韓國은 트랙터를 包含하여 動力耕耘機가 48.9萬臺, 揚水機 30餘萬臺 等を 保有 稼動하고 있으나 北韓은 트랙터(15馬力 換算基準) 約 13.5萬臺와 多數의 連結農機械를 協同農場의 農機械 作業班이 保有하고 있는 實情이다.

化學肥料의 供給實態를 보면 韓國은 1967年까지 相當量을 輸入에 依存하였으나 1968年부터 完全 自給이 可能해졌으며 1971年 “統一系”의 多收穫 벼品種의 開發로 消費量이 急增, 다소 自給率이 떨어지는듯 하다가 1976年부터는 化學肥料의 自給自足과 더불어 輸出物量을 確保하고 있는 實情이다.

化學肥料에 있어서는 北韓도 日政時에 建設한 興南肥料工場을 비롯 靑年化學綜合工場, 아오지 化學工場 등에서 化學肥料를 生産하고 있어 어느程度의 需要는 充足되는 것으로 보인다.

1983年 現在 南北韓의 施肥量은 成分舍量 基準으로 韓國이 町步當 333 kg인데 比해 北韓은 町步當 328 kg으로 韓國이 약간 앞서고 있으나 점차 그 隔差가 좁혀지고 있는 趨勢이다.

肥料의 成分別 構成에 있어서 韓國은 窒素·磷酸·칼리질의 比率이 55:27:18로 比較的 均衡된 體系를 갖추고 있지만 北韓은 生産體系가 磷肥 中心으로 되어있고 칼리肥料는 技術的인 問題로 外國으로부터 輸入에 依存하고 있는 實情이어서 均衡的인 施肥體系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또한 育種理論과 營農技術面에서 韓國은 이미 國際水準에 達하여 統一·維信·水原벼 系統의 多收穫品種의 재배가 一般化됨으로써 1983年 現在 단보당 쌀 生産量이 440 kg에 이르고 있으나 北韓은 아직도 日帝때의 育種理論과 蘇聯 및 中共의 저급한 理論에만 依存하고 있어 1983年 現在 단보당 쌀 生産量은 297 kg에 머물고 있는 實情이다.

以上과 같은 農業生産基盤을 綜合評價해 볼 때, 韓國은 논이 北韓의 두배로써 水稻作 中心의 農業을 營爲하게 되는데 比하여 北韓은 밭이 韓國의 1.7倍로서 옥수수를 主種으로 하는 밭農事 爲主의 農業이고 耕地面積, 霜降日數 및 氣溫, 降雨量 等 自然條件面에서 韓國이 有利한 農業基盤을 가지고 있다 하겠다.

그러나 韓國은 人口 1人當 耕地面積에 있어서 北韓의 절반정도에 不過하고 土地整理水準, 水稻作 中心 등에서 오는 營農機械化의 不利點을 지니고 있다.

農業部門 主要 指標

區 分	單 位	韓 國	北 韓
耕地面積	萬町步	216.7	213.6
農家人口	萬名	947.5	718.9
段步當 쌀 生産量	kg	440	297
農機械 保有臺數	千臺	動力耕耘機: 489.2 트랙터: 7.5	트랙터 (15馬力換算): 135.5
化學肥料 施肥量	町步當 kg (成分含量基準)	333	328

다. 食糧作物 生産

韓國의 食糧生産 實績은 營農技術의 發展과 土地生産性的 向上으로 旱魃이 甚했던 1967~1968 年の 2 個年度와 極甚한 冷害로 凶作을 記錄했던 1980 年度를 除外하고는 지난 20 年 동안에 每年 4~5%의 높은 成長을 이룩하여 왔다. 1983 年度 韓國의 쌀 生産量은 540.4 萬屯이며 薯類를 包含한 穀物 總生産高는 713.3 萬屯을 生産하였다.

北韓은 食糧生産實績을 國際적으로 전혀 通用되지 않는 粗穀概念인 알곡을 基準으로 發表하고 있으며 穀種別 生産量이나 精穀換算率, 심지어는 薯類의 包含與否까지도 正確히 把握하기가 어려운 實情이다.

北韓의 알곡生産實績을 살펴 보면 解放直後인 1946 年 200 萬屯이던 것이 1947~1949 年間에는 薯類를 除外하고 230 餘萬屯의 平年作 水準을 維持하였고 農業協動化過程에서 生産量은 漸次 上昇되어, 1961 년에는 490 餘萬屯, 1963 년에는 500 萬屯을 生産하였다는 등 비약적인 增産이 이루어진 것처럼 發表하고 있다.

1970 年代에 들어와서는 소위 “主體農業”을 關切하고 寒冷戰線의 影響을 극복하여 町步當 알곡生産이 1974 年에 논벼 5.9 屯, 옥수수 5 屯, 1979 년에는 논벼 7.2 屯, 옥수수 6.3 屯으로 町步當 收穫高가 世界的 水準에 달하였다고 선전하는가 하면 最近에도 1982 年度에는 알곡생산이 950 萬屯에 달했다고 屢次 강조하여 發表하고 있다 (1983 年度의 實績은 公式的인 發表를 기피하고 있음이 注目된다).

그러나 北韓에서 發表하는 食糧統計가 粗穀概念이라는 것 외에도 統計作成이 立苗狀態에서 이루어지고 國家計劃 目標達成에 급급한 나머지

지 가장 잘 된 部分을 샘플로 選定하여 統計를 作成하고 있기 때문에 統計發表値와 實際 生産量間에는 엄청난 誤差를 지니고 있다.

通常 北韓이 發表하는 食糧統計를 우리 概念의 食糧統計로 바꾸기 위해서는 立苗減耗率 20%, 精穀換算時 損失率 30%, 統計値와 實生産値間의 誤差 20%를 差減해야 한다.

따라서 耕地面積, 植付體系, 病蟲害 및 自然災害 등 自然條件과 育種水準, 營農技術, 施肥體系 등을 綜合的으로 檢討, 適用하여 볼 때 總穀物生産量은 1980年度에 約400萬屯에 不過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1983年度에는 426萬屯으로 推定된다.

南北韓食糧作物生産量

(單位：精穀基準 千%)

區 分 年 度	韓 國			北 韓		
	穀 物	薯 類	合 計	穀 物	薯 類	合 計
1970	6,160	783	6,943	4,000	306	4,306
1971	6,085	707	6,792	4,060	269	4,338
1972	6,069	674	6,743	3,780	256	4,036
1973	6,148	611	6,759	4,140	243	4,383
1974	7,464	543	6,921	4,172	289	4,461
1975	6,932	740	7,672	4,213	215	4,428
1976	7,535	671	8,206	4,273	208	4,481
1977	7,402	603	8,005	4,540	221	4,761
1978	7,663	565	8,228	4,357	212	4,569
1979	7,611	501	8,112	4,574	223	4,797
1980	4,905	431	5,336	3,710	200	3,910
1981	6,471	455	6,926	5,105	263	5,368
1982	6,449	369	6,818	5,189	270	5,459
1983	6,661	472	7,133	3,990	270	4,260

라. 畜産業 實態

農業의 有畜化와 酪農化는 自給肥料의 原料를 供給하여 作物收穫을 높이고, 農繁期·農閑期の 年中 勞動力配分을 合理化 시킬 수 있는 利點이 있다. 더우기 圓滑하게 資金을 回轉시킬 수 있는 重要部門이다.

韓國은 이와 같은 酪農業의 進興을 위하여 60年代부터 飼料供給뿐 아니라 經營組織 全體를 合理的으로 운영토록 指導하고 특히 作物栽培部分의 集約度가 家畜飼料를 위하여 한층 높아지도록 連結시키는데 注力함으로써 급속히 成長하여 왔다.

한편, 北韓의 畜産은 國營畜産, 共同畜産(協同農場), 農民들의 副業畜産 등의 形態로 構成되어 있는데, 70年代 以後 漸增하는 畜産物需要를 充足시키기 위하여 協同農場과 社勞靑員들에게 一定數의 家畜을 責任飼育케 하는 등 家畜飼育頭數 增大에 注力하여 왔다.

그러나 北韓의 高질적인 飼料難, 疾病의 만연, 飼養管理 技術의 酪後 等으로 별다른 發展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마. 水産業 實態

韓國은 3面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地域적인 條件과 豊富한 水産資源을 勘案하여 漁民의 所得增大, 水産物 輸出擴大 및 持續的 生産增大를 爲한 基盤造成에 政策의 重點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水産資源 造成 및 繁殖保護를 비롯하여 漁業基本施設의 擴充, 淺海養殖事業 및 內水面開發, 遠洋漁業 伸張에 注力해 왔다.

北韓은 水産物을 食生活에 있어 重要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보고 生産增大를 위해 政策重點을 두고 있는 바, 現行 2次7個年計劃에서는

350萬屯 目標을 提示하고 있고 80年代 10대 展望目標에서는 500萬屯의 生産目標을 設定하고 있다.

1983年末 現在 南北韓의 主要 水産現況을 比較하면 漁船保有數에 있어 韓國은 動力船 6萬7千餘隻을 비롯, 總 8萬6千餘隻에 이르고 있으나 北韓은 動力船 2萬隻을 包含, 總 3萬隻에 이르고 있다.

또 水産物 生産實績에 있어서도 1983年末 한국은 漁獲量 總 279萬3千屯의 水産物을 生産한데 비해 北韓은 總 207萬屯의 水産物을 生産하고 있어 漁船保有數에 비한 生産實績은 北韓이 훨씬 앞서고 있다.

이와 같은 現狀은 北韓이 政策的으로 水産物 生産增大에 큰 比重을 두고 있음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은 北韓의 人民들이 벌이고 있는 “200日 出漁戰鬪”, “300日 出漁戰鬪”와 같은 競爭運動에 따라 이룩된 成果라 할 수 있다.

主要 水産業 現況

(1983年 現在)

區 分	單 位	韓 國	北 韓
水 産 物 生 産 量	萬 屯	279.3	207
漁 船 保 有 數	萬 隻	8.6	3
그 중 動 力 船	萬 隻	6.7	2

4. 鑛 工 業

가. 政策目標 및 工業化 戰略

우리의 經濟開發의 窮極的 目標은 國民生活의 向上에 있으며, 이는 豐饒한 消費生活을 可能케 하는 데 있다. 우리가 生産材를 生

産하는 理由도 生産材를 利用하여 보다 좋은 消費材를 보다 많이 生産할 수 있기 때문이다. 北韓은 그들 經濟體制의 窮極的 目標가 “人民生活의 劃期的 向上”에 있다고는 하나 實際에 있어서 지금 까지 軍需産業 爲主의 重工業 建設에만 힘쓰고 일상생활에 直結된 輕工業部門의 建設을 極度로 抑制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財源의 不足으로 關心을 돌리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그러므로 이는 住民生活의 向上을 不可能하게 할 뿐만 아니라 産業構造의 歪曲으로 인하여 經濟發展에도 支障을 超來하고 있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韓國의 工業化過程은 1960年代 初에는 輸入代替産業의 育成에 注力하였고 곧 이어 60年代 中盤부터는 이것이 輸出産業으로 轉換됨으로써 高度成長을 主導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70年代에는 重化學工業을 開發하기 始作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의 工業化는 國內外 市場需要를 土臺로 消費材工業을 먼저 開發하고 다음에 生産材工業을 開發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輕工業基盤이 構築되고 社會間接資本施設이 擴充된 바탕위에서 重化學工業이 劃期的으로 發展하고 있어 全體的인 均衡發展이 이룩되고 있다.

그러나 北韓은 이와 反對로 消費材市場을 無視하고, 重工業을 먼저 開發한 結果로 産業構造가 均衡을 잃고, 社會間接資本施設의 不足, 輕工業의 不振으로 全體의 經濟開發에도 非能率的인 結果를 招來하였다.

나. 鑛工業資源과 에너지

鑛工業資源의 埋藏과 分布에 있어서 北韓은 韓國에 比하여 甚

선 有利한 條件을 갖고 있다.

1945年 南北韓 分斷時 鐵鑛石은 90% 以上, 無煙炭은 87%, 有煙炭은 98%가 北韓地域에서 生産되고 있었으며, 豊富한 水資源과 더불어 電力도 韓半島 全體의 92%가 北韓地域에 偏在되어 있었다.

더우기 日本 軍國主義者들이 韓半島를 大陸進出을 위한 兵站基地로 보고 南에는 農業生産 基盤構築, 北에는 兵器産業을 비롯한 鑛工業部門을 重點育成시킴으로써, 南北韓의 産業不均衡이 한층 深化되었던 것이다.

南北韓 産業施設 配置狀況 (1944年度)

(單位 : %)

區 分	地 域 別		區 分	地 域 別	
	韓 國	北 韓		韓 國	北 韓
工業總生産額	40	60	機械製作및金屬加工業	72	28
發 電 所	8	92	化 學 工 業	18	82
燃 料 工 業	12	88	建 材 工 業	27	73
鑛石採掘業	22	78	紡 織 工 業	67	33
冶 金 工 業	10	90	알곡總收穫高	66	34

8.15 解放은 南北韓間의 補完關係를 根本적으로 破壞하였으며 北韓은 이와 같은 有利한 鑛工業資源을 바탕으로 工業化를 일찍 推進할 수 있었다. 1983年 現在 南北韓의 主要 鑛物 埋藏量을 比較해 보면, 石炭은 韓國이 15億屯인데 反해 北韓은 120億屯으로 韓半島 全體 石炭埋藏量의 87%가 偏在되어 있고, 그 中에서도 工業用으로 쓰이는 有煙炭의 98%가 偏在되어 있어 豊富한 水資源과 더

불어 北韓의 電力生産에 크게 奇異하고 있다.

鐵鑛石은 韓國이 1億2千萬屯인데 反해 北韓은 30萬屯으로 우리의 25倍이고 마그네사이트는 韓國에서는 전혀 生産되지 않고 있는데 反해 北韓은 65億屯의 埋藏量을 保有하고 있다.

金, 銀을 비롯한 其他 鑛物資源에 있어서도 망간만이 埋藏量面에서 韓國이 北韓에 비해 優勢를 보일 뿐, 大部分의 鑛物資源이 埋藏量이나, 生産量에서 훨씬 優勢한 立場에 있다. 北韓은 이처럼 相對적으로 豊富한 鑛物資源을 開發하여 輸出의 主宗商品으로 삼아왔으며 最近에는 이를 半製品化하여 輸出함으로써 外貨稼得率을 높이는데 注力하고 있다.

한편 韓國은 貧弱한 資源不足 與件으로 말미암아 資源의 海外依存度가 높으며, 重化學工業의 開發에 따른 所要資源의 增大와 함께 그 依存度는 더욱 深化되어 가고 있다.

1973年 1次 石油波動 以來 繼續 擴大傾向에 있는 “資源내셔널리즘”에 비추어 資源의 安定的인 供給이라는 側面에서 韓國은 長期的으로는 産業構造를 資源이 덜드는 技術集約的인 産業體制로의 轉換을 摸索하는 한편 資源의 開發輸入體制를 強化하는 方向으로 나가게 될 것이다.

工業化의 原動力이라 할 수 있는 에너지 開發과 生産을 보면 韓國은 石炭増産施策의 持續的인 推進에 힘입어 1983年 1,986萬屯의 石炭을 生産하였다. 反面 北韓은 豊富한 石炭埋藏量과 지금까지의 開發努力에 힘입어 無煙炭과 有煙炭을 합하여 3,500萬屯을 生産한 것으로 評價된다. 그러나 南北韓은 共히 製鐵, 製鋼用 原料炭인 瀝青炭의 生産

主要礦物埋藏量

(1983 年)

區 分	品 位 (%)	單 位	韓 國	北 韓
鐵 鑛 石	Fe 50	萬 屯	1.2	30.0
銅	Cu 100	萬 屯	10.5	215.5
鉛	Pb 100	"	49.2	600.0
亞 鉛	Zn 100	"	73.8	1,200.1
石 炭	4,000KCal/kg 以上	億 屯	14.5	119.9
石 炭 石	CaO 50	"	14.9	1,000.0
우 라 늑	U ₃ O ₈ 0.3 ~ 0.4	萬 屯	5,600.0	2,600.0

이 全無하므로, 이를 海外로부터 導入하고 있는 바, 韓國은 有煙炭 1,015 萬屯을 包含하여 約 1,096 萬屯의 石炭을 輸入하였고, 北韓은 有煙炭中 粘結炭과 코크스를 150 ~ 200 萬屯 程度 輸入한 것으로 보인다.

精油施設은 韓國이 現在 日産 79 萬배럴 (年産 約 3,500 萬屯)의 能力을 保有하고 1日 平均 50 萬배럴 以上の 原油를 精製하고 있는데 比해, 北韓은 蘇聯 및 中共 援助로 建設된 '勝利化學' 과 '烽火化學' 의 두 精油工場이 도합 日産 7 萬배럴 (年産 350 萬屯)의 精油能力을 保有하고 있는데, 이나마도 原油導入의 부진에 따라 稼動率은 60 ~ 70 %程度에 不過한 것으로 判斷된다.

南北韓 原油輸入 實績은 1983 年度에 韓國이 19,789.6 萬배럴을 OPEC 諸國 等 10 여개의 산유국에서 導入하였고, 北韓은 蘇聯, 中共, 이란의 3 個國에서 1,591 萬배럴 정도를 도입한 데 불과하다.

오랜 기간동안 北韓이 優位를 維持해 왔고, 韓國에 對해 큰소리쳐 왔던 電力도 1972年을 기해 뒤떨어지기 시작했고 現在에는 相當한 隔差를 보이고 있는데 1983年末 現在 韓國의 發電施設容量은 原子力 發電까지 합해 1,311.5萬kw인데 반해 北韓은 574만kw로 우리의 1/2水準 에도 못미치고 있고, 發電量은 韓國이 488.5億kwh인데 비해 北韓은 230億 kwh이다.

主 要 에 너 지 現 況

(1983年 現在)

區 分	單 位	韓 國	北 韓
發電施設容量	萬 kw	1,311.5	574
發電量	億 kwh	488.5	236.3
精 油 能 力	日産 萬배럴	79	8
原 油 導 入 量	萬배럴	19,789.6	1,591
石 炭 生 産 量	萬 屯	1,986	3,500
石 炭 輸 入 量	"	1,096	150 ~ 200

電力供給構造 역시 韓國은 原子力發電所의 增設과 함께, 有煙炭과 가스燃燒用 發電所의 新·增設을 推進하고 있는 작금의 努力에도 不拘하고, 아직도 石油燃燒用 火力發電所가 爲主인데 反해, 北韓은 압록강과 두만강 水系를 源泉으로 하여 값싼 電力을 生産하는 水力發電이 爲主임이 特徵이다.

南北韓의 에너지 供給構造를 살펴보면, 韓國은 石炭 33.2%, 石油類 56.2%, 水力 1.4%, 原子力 4.5%, 薪炭 4.8%로 構成되어 있는 것으로 算出된다.

이를 볼 때 韓國의 에너지 供給構造는 脫石油政策과 부단한 努

力으로 油類依存도가 낮아지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아직도 海外에서 輸入하는 石油類에 約 56 %를 依存하고 있는 등 에너지의 輸入依存도가 約 75 %에 達함으로써 에너지 供給構造의 취약성은 물론, 에너지 單價도 상당히 비싼 취약점을 안고 있다.

이에 비해 北韓은 에너지중 石炭의 供給比重이 約 73 %에 달함으로써 에너지의 輸入依存도는 相對적으로 낮은 편이고, 에너지單價 역시 韓國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렴하다고 할 수 있다.

에너지供給構造

(1983 年)

區 分	單 位	韓 國	北 韓
에너지供給總量	石油換算 萬屯	4,970	2,482
石 炭	%	33.2	72.9
石 油 類	"	56.2	10.1
水 力	"	1.4	12.3
原 子 力	"	4.5	-
薪 炭	"	4.8	4.7

그러나 北韓은 이와 같은 에너지産業의 長點에도 不拘하고 最近 심각한 에너지不足 問題에 直面하고 있는 바, 이는 “石炭은 金이다”, “石油는 피 한방울과 같다”는 등, 增産과 節約運動의 強調에서 이를 엿볼 수 있다.

埋藏量이 豊富한 石炭需給에 있어서도, 北韓은 1977年 以來 原油導入이 不振하자 一部 石油使用處를 石炭으로 對替하고 外貨獲得을 위한 石炭輸出을 劃策하고 있어 需要는 急增되고 있으나, 生産은 既存 炭鑛들의

採炭條件 惡化, 採炭裝備 落後 等으로 生産能率이 低下되고 있다.

한편 電力에 있어서도 北韓은 水力發電 設備의 老朽로 因한 故障이 頻繁하고 年中 11月中旬에서 다음해 3月末까지의 渴水期와 結氷期에 河川水量의 不足과 結氷으로 稼動率이 低下되고 있어 電力需要가 가장 많은 계절인 겨울에 安定的인 電力生産과 供給이 어렵다.

다. 重化學工業

1) 鐵鋼 및 非鐵金屬工業

鐵鋼의 生産과 消費量은 한 나라의 國力과 工業化의 水準을 評價할 수 있는 基準이 된다.

韓國은 1973年 浦項製鐵의 第2高爐 稼動을 契機로 1973년에는 粗鋼能力이 318萬屯을 保有하게 되었으며, 그 後 同 工場의 第3期, 第4期 增設工事 等으로 生産能力이 크게 擴充을 기해 北韓을 앞지르기 시작했다.

1983年 現在 韓國의 粗鋼能力은 浦項製鐵의 910萬屯을 包含하여 1,404萬屯에 달하고 있으나, 北韓은 430萬屯 水準으로서 韓國이 北韓을 3倍 이상이나 앞지르고 있다.

銑鐵生産은 韓國이 883萬屯인데 反해 北韓은 508萬屯이고, 壓延鋼材 生産能力은 韓國이 1,888萬屯인데 비해 北韓은 319萬屯으로 무려 6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鐵鑛石 需給面에서는 北韓의 경우 大部分을 自體의 生産品으로 充當하고 있으나, 韓國은 鐵鑛石을 비롯하여 古鐵 等 거의 大部分을 海外로부터 導入하고 있어 鐵鋼工業의 海外依存度는 75%에 달하고 있는 實情이다.

製鋼製鐵技術 및 生産시스템을 보면 韓國은 浦項製鐵의 最新設備를 保有하고 있고 꾸준한 技術開發을 推進해 나옴으로써 先進國水準을 維持하고 있으나, 北韓은 日帝時에 建設한 既存設備를 中心으로 部分的인 補修와 改築만을 推進해 온 關係로 現在의 施設로는 汎用鋼鐵을 除外한 高級製品 生産에는 많은 制約을 받고 있는 實情이다.

南北韓間의 全般的인 製鐵, 製鋼技術水準을 比較, 評價해 볼 수 있는 事例로는 910 萬屯의 粗鋼能力을 保有, 稼動하고 있는 浦項製鐵의 從業員數가 附屬工場을 包含하여 1 萬 6 千名인데 反해 北韓의 “金策製鐵所” 등 6 個의 製鐵, 製鋼工場을 包含한 403 萬屯의 粗鋼生産施設을 稼動하는데 從事하는 從業員數가 6 萬 5 千名이라는 事實을 보더라도 充分히 그 水準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非鐵金屬 生産能力을 보면 1983 年 現在 北韓은 自體의 原料에 依據 年 3.8 萬屯, 아연 15.5 萬屯, 銅 7.7 萬屯을 生産할 수 있는 能力을 갖추고 있으며, 알루미늄은 제련시설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었으나 最近 蘇聯으로부터 技術 및 施設을 導入하여 平安남도 北倉에 年産 2 萬屯 能力의 알루미늄 工場을 建設中에 있으며 1983 年 8 월에 第 1 期 工場이 完工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北韓으로서는 알루미늄 製鍊이 非鐵金屬 分野中 가장 落後된 産業으로서 비록 北倉알루미늄 工場이 一部 完工되었다 하더라도 自體需要를 充當할 뿐이며 輸出競爭力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韓國은 1970 年代 後半에 重化學工業 建設의 本格的인 推進과 더불어 急激히 增大되는 非鐵金屬 需要에 對處하기 위하여 慶尙南道 溫山地域에 非鐵金屬團地를 造成하고 銅, 亞鉛, 鉛, 알루미늄의 大單位 製

鍊所가 完工되어 1983年 現在 鉛 9千屯, 亞鉛 10.4萬屯, 銅 14萬屯, 알루미늄 1萬8千屯의 生産能力을 갖추게 되었다.

鐵鋼 및 非鐵金屬 生産能力

(1983年 現在)

區 分	單 位	韓 國	北 韓
銑 鐵	萬 屯	883.2	508
粗 鋼	"	1,404	430
壓 延 鋼 材	"	1,887.8	319
鉛	"	0.9	3.8
亞 鉛	"	10.4	15.5
銅	"	14	7.7
알 루 미 늬	"	1.8	1

2) 機械工業

機械工業은 北韓이 일찍부터 軍需産業 中心의 重工業優先政策에 따라 가장 力點을 두어 開發해 온 部門이다.

그러나 北韓은 이 部門에 있어서도 1970年 以後 韓國의 重化學工業의 重點的 開發과 急速한 發展으로 炭·鑛山의 大型 採掘設備部門을 除外하고는 거의 모든 部門에서 劣勢한 局面에 處하게 되었다.

특히 自動車, 船舶 等 輸送用 機械와 紡織機械, 電氣機器面과 電子 通信裝備, 精密機械 등에서 韓國은 先進國 水準에 突入함으로써, 北韓과는 比較의 餘地가 없게 되었다.

이러한 結果는 北韓이 內向性開發과 採算性을 無視한 軍需産業 爲

주의 機械工業開發로 需要가 작은 大型機械들까지도 自體生産에 注力하였는데 反해 韓國은 對外指向的 成長과 需要에 따른 機械工業 育成을 推進하고 있는 點에 起因한다 하겠다.

즉 北韓은 軍需産業의 開發을 위해 聯關産業인 工作機械工業을 重點的으로 育成하였으나 韓國은 大型裝備나 機械를 生産할 수 있는 能力은 保有하고 있지만 市場經濟의 原理에 따라 需要가 많지 않아 大量生産이 不必要한 것은 生産하지 않고, 輸出産業 및 內需市場 爲主의 工業化에 따라 電氣, 電子, 輸送用機械, 紡織機械 生産部門에 特化한 때문이다.

主要 機械工業部門의 生産能力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自動車는 韓國이 年間 33萬7千臺를 生産할 수 있는 施設을 保有하고 모든 種類의 車輛을 生産, 國內 需要充足은 물론 相當한 量을 輸出하고 있으나, 北韓은 平南 德川에 位置한 勝利自動車綜合工場에서 貨物自動車와 질차 등 年間 1萬5千臺를 生産할 뿐이므로 北韓은 乘用車 및 大型 輸送用車輛 그리고 特殊 貨物運搬車輛 등은 蘇聯, 체코, 日本 等地에서 輸入하고 있다. 造船部門에 있어서는 1983年 現在 韓國은 年間 400萬屯을 建造하고 있는데 反해 北韓은 年間 21萬屯 程度의 能力을 保有하고 있으나, 이도 規格화된 貨物船과 冷凍運搬船을 內需用으로 建造하는데 不過한 零細性を 띠고 있다.

最大船 建造實績 역시 韓國은 26萬屯級인데 反해, 北韓은 2萬屯水準에 있어 比較가 안될 만큼 造船技術水準도 그 隔差가 크다.

工作機械 生産能力은 韓國이 선반, 불반, 터닝반 등 年間 5萬臺의 生産能力을 保有하고 있고, 水準도 컴퓨터가 裝置된 數直 制御 旋盤

(N.C.C)을 비롯, 海外에서 好評을 받는 有力한 輸出商品을 生産하고 있는데 반해 北韓은 汎用工作機械類를 年間 3萬臺 生産할 수 있는 能力을 保有하고 있을 뿐이다.

農業用 機械에 있어서도 韓國은 15馬力 換算基準으로 耕耘機, 트랙터 등 年間 7萬 3千臺의 各種 機械를 生産할 수 있는 能力을 가진데 비해 北韓은 트랙터, 連結農機械 등 3萬臺를 生産할 수 있는 能力을 保有하고 있다.

電子製品 生産水準을 보면 韓國은 當初 輸入代替産業으로 始作했으나, 勞動集約的이면서도 同時에 技術集約的이라는 特性때문에 最近에는 輸出産業으로 크게 各광을 받을 程度로 急成長하였는 바, 1983年 現在 生産能力을 보면 TV受像機는 칼라TV가 355萬臺, 黑白TV가 530萬臺로서 都合 885萬臺이고, 冷藏庫는 170萬臺를 生産할 수 있는 能力을 保有하고 있으며 이밖에 通信機器를 비롯한 各種 現代化 電子機器와 部品을 大量 生産하고 있다.

이에 反해 北韓은 1979年에야 黑白TV를 年間 10萬臺 程度 生産할 수 있는 “대동강TV受像機工場”을 完工하였으며, 如他的 TV組立工場의 能力까지 合해도 年間 15萬~20萬臺의 生産能力 밖에는 없다. 칼라TV는 部品을 全量 輸入하여 組立하고 있는 實情이고 冷藏庫 역시 最近에야 冷凍室과 冷藏室이 갖추어진 冷藏庫가 生産될 뿐이다.

그 밖에도 北韓은 低水準의 通信裝備를 除外하고는 電子製品은 全量 海外輸入에 依存하고 있는데, 最近에는 유엔開發計劃(UNDP)의 援助를 얻어 이 部門에 대한 開發을 着手하였다.

主要 機械製品 生産能力

(1983 年 現在)

區 分	單 位	韓 國	北 韓
自 動 車	萬臺	33.7	1.5
造 船	萬屯	400	21
工 作 機 械	萬臺	5	3
農 機 械	萬臺(15 馬力換算基準)	7.3	3
T V 受 像 機	萬臺	885	15 ~ 20
冷 藏 庫	萬臺	170	1 ~ 2
손 목 時 計	萬個	812	10

3) 化學工業

化學工業도當初에는金屬 및 機械工業과 마찬가지로北韓이韓國에 비해 優位에 있었으나, 現在는 比較가 안될 만큼 韓國이 絶對的 優位를 占하고 있다. 解放當時 北韓에는 年産 48 萬屯 規模의 “興南肥料工場”을 비롯하여 重要的 化學工場이 있었으나 韓國은 1950 年代까지 化學肥料를 全量 外國에서 輸入해야만 하였다.

그러나 韓國은 1959 年 “忠州肥料工場”의 建設로 化學肥料 自給의 基盤을 構築하기 시작했고, 1977 年 第 7 肥料工場까지 稼動되므로써 1983 年 現在 化學肥料 生産能力은 成分含量 基準으로 140 萬屯에 달해 北韓의 63.9 萬屯에 비해 그 能力面에서 2 倍以上을 凌駕하고 있다.

肥料의 生産構造에 있어서도 韓國은 肥料 生産設備가 요소비로 生

産을 中心으로 한 高成分 肥料生産 위주인데, 北韓은 成分含量이 낮은 유안비료와 100萬屯에 달하는 인비료가 主 生産品이다.

農藥生産은 1983年 韓國이 實量基準으로 20餘萬屯인데 反해 北韓은 2萬餘屯에 不過하고 그 種類 또한 極히 적어 많은 量의 農藥을 日本으로부터 輸入하고 있는 實情이다.

合成樹脂는 1983年 現在 韓國이 年間 約 104萬屯의 生産能力을 保有하고 있는데 反해 北韓은 9萬屯으로 韓國의 10分の1 水準에 미치지 못하고 生産品의 種類와 質的인 面에서도 韓國과는 比較가 되지 않을 程度로 低급한 水準이다.

南北韓 共히 充分한 資源을 가지고 있는 시멘트는 1983年 現在 韓國이 2,345萬屯의 生産能力을 保有하고 國內建設과 海外建設 現場에 充分한 物量을 供給하고 있고 北韓 역시 年間 860萬屯을 生産, 自體需要를 充當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主要 化學製品 生産能力

(1983年 現在)

區 分	單 位	韓 國	北 韓
化 學 肥 料	萬屯(成分含量基準)	140	63.9
農 藥	萬屯(實量基準)	20	2
主 要 合 成 樹 脂	萬 屯	104	9.2
시 멘 트	"	2,345	860

라. 輕工業

輕工業은 住民들의 一常生活과 密接한 關係를 가진 生活必需品 卽, 消費品을 生産하는 部門이다.

따라서 資本主義體制에서는 生産業者들의 需要가 많은 輕工業製品生産에 우선을 두게 되고 當局도 이 部分에 대해 政策的인 重點을 두고 있다. 그러나 商品의 需要供給이 中央計劃機關에서 一方的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지고 住民들의 要求를 暮살할 수 있는 北韓에서는 輕工業 自體가 政策的으로 無視될 수 있는 部分이다.

더우기 北韓은 지금까지 軍需産業 爲主의 重工業 優先政策에만 몰두해 왔기 때문에 輕工業部門에 對해서는 極도로 投資를 抑制해 왔고 그 結果는 北韓의 産業中 가장 落後된 部門으로 轉落시켰다.

南北韓의 主要 輕工業製品 生産能力을 比較해 보면 다음과 같다.

主要 輕工業製品 生産能力

(1983年 現在)

區 分	單 位	韓 國	北 韓
織 維	萬 屯	126.8	12.8
織 物	億 m (萬屯)	59.3 (54.9)	6 (5.6)
신 발	百 萬 足	400	52.1
관 유 리	萬 m ²	6,150	2,322.5

마. 技術水準

全般的으로 볼 때 韓國은 開放體制에 의한 先進技術과 設備의 導入으로 急速한 技術革新을 이룩하였고, 이를 收用, 土着化시켜 나가고 있는데 반해, 北韓은 閉鎖體制로 自力更生原則에 의한 自體의 技術開發에만 依存하였기 때문에 技術水準이 極도로 落後되어 있다.

南北韓의 主要 技術水準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産業用 機械部門에 있어서 韓國은 콘크리트, 믹서, 벽돌製造機 등의 生産技術은 國際水準이고 高濃度 크리머, 淨水機 등은 輸出段階에 있다. 北韓은 汎用工作機械에 한하여 量産體制가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며 板金部門은 蘇聯, 체코 等地에서 그 技術을 導入하고 있다.

둘째, 農業用 機械分野의 境遇 韓國에서는 動力耕耘機 등 各種 農機械가 大部分 國産化되고 있으며, 動力機械는 97%, 動力噴霧器는 86%의 높은 國産化率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北韓에서는 트랙터 등 連結農機械를 20餘種 生産하고 있으나, 베어링 등 一部 品目は 蘇聯에서 輸入하고 있다.

셋째, 韓國은 輸送用 機械分野, 그중에서도 自動車는 乘用車와 小型 트럭의 生産技術이 優秀하며, 性能面에서도 단연 北韓을 壓倒하고 있다.

이에 비해 北韓은 大型 工作機械와 採掘機械 등 裝備生産에서 약간 優位에 있다. 그러나 이나마도 베어링, 점화기 등 主要部品은 外國에서 輸入하여 使用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電氣·電子機械도 韓國이 優位에 있고, 北韓은 發電用機械 部門에서 다소 技術이 蓄積되어 있는 편이다.

5. 輸送·通信

오늘날의 輸送手段은 鐵道를 비롯하여 高速道路, 海運, 航空 등 多樣하게 發展되어 있다. 그 중에서 종래 輸送手段의 核心이었던 鐵道는 輸送手段이 多樣하게 發達된 오늘날에도 貨物輸送에 있어서는 가

장 重要な 役割을 擔當하고 있다.

1983年 現在 韓國의 鐵道 總延長은 6,129餘km이며, 이中 電鐵化 區間은 1,016餘km인데 반해, 北韓의 鐵道 總延長은 約 4,441 km 이며 이中 59%인 2,636 km가 電鐵化되어 있다.

北韓은 輸送構造上 貨物輸送의 90%, 旅客輸送의 60%를 鐵道가 擔當하고 있으므로 해서 생기는 鐵道輸送의 停滯性을 脫피하고 輸送의 牽引能力을 提고하기 위하여 電鐵化에 注力해 온 結果 鐵道の 電鐵化率이 높은 것이다.

1983年 現在 韓國의 도로 總延長은 5萬4千km를 상회하고 있으며 이中 1,420 km가 고속도로로 되어 있어 명실공히 韓國 全지역은 1日 生活圈化 되었다.

또한 道路鋪裝率은 39%에 달하고 있고 自動車 保有臺數는 78萬5千臺에 이르러 점차 道路輸送의 比重이 커지고 있는 바, 이는 自動車産業의 發展과 所得水準의 增大에 따른 마이카붐의 急速한 擴大에 따른 것이다. 1982年 現在 韓國의 自動車輸送 比重은 旅客輸送面에서 鐵道の 21倍, 貨物輸送面에서는 2.5倍以上으로 모든 輸送手段中에서 가장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北韓은 道路總延長이 2萬1千km이고, 高速道路는 平壤-元山間 172 km, 平壤-南浦間 53 km, 平壤-順安間 15 km를 합해 모두 240 km에 不過하고, 道路鋪裝率은 12.8%이다.

北韓의 自動車 運行臺數는 農村과 炭·鑛山에서 保有하고 있는 貨物自動車와 버스를 중심으로한 18萬9千臺 정도인데 이것마저도 平壤 등 大都市와 저지대인 서부지역 일대에 집중되고 있다.

海運輸送은 韓國의 경우, 대외무역의 增大와 더불어 그 重要性이 날로 增大되어 1983年 現在 荷役能力은 9,600萬屯에 달하고 있고, 外港船 保有屯數는 703萬屯에 이르렀으며 自國船積聚率도 46.7%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北韓은 對外貿易에 소극적이었는데다 東西海岸이 分離되어 있는 탓으로, 海運部門이 극히 落後되어 있다.

最近에 이르러서는 北韓은 對外貿易의 增大政策을 追求하면서 海運과 港灣施設을 整備, 補強코져 努力하고 있는데 그 實例로서는, 南浦, 海州와 松林港을 對外貿易港으로 擴張했고, 外港船 建造에 힘쓰고 있는 것이다.

1983年 現在 荷役能力은 3,280萬屯이고, 自國船積聚率은 20%水準에 불과하며 外港船 保有屯數도 62萬屯水準으로 海運部門의 落後性을 보여주고 있다.

航空輸送에 있어 韓國은 外港船만도 20個國, 30個路線에 101臺의 航空機가 運航을 하고 있고, 그 伸長勢가 날로 늘어나는데 비해, 北韓은 不定期的인 國內路線 以外에 週 1~2回의 平壤-北京, 平壤-모스크바, 平壤-하바로프스크의 2個國, 3個都市의 國際路線밖에는 運航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航空機도 空軍에서 運營하는 구형기 17臺를 保有하고 있을 뿐이다.

通信施設에 있어서 韓國은 서울의 電話加入만도 174萬回線이나, 北韓은 平壤에 自動化回線 1萬線이 架設되어 있을 뿐이다.

輸 送 ・ 通 信 現 況

(1983年 現在)

區 分	單 位	韓 國	北 韓
鐵 道 總 延 長	km	6,129	4,441
(電 鐵 化 區 間)	"	(1,016)	(2,636)
客 車	臺	2,132	860
貨 車	"	16,038	21,000
地 下 鐵	km	93.1	30.5
道 路 總 延 長	"	54,550	21,000
(高 速 道 路 區 間)	"	(1,420)	(240)
鋪 藏 率	%	39.0	12.8
自 動 車 保 有 臺 數	萬 臺	78.5	18.9
港 灣 荷 役 能 力	百 萬 屯	96	32.8
外 港 船 保 有 屯 數	萬 屯	703	62
航 空 機 保 有 臺 數	臺	101	17
國 際 路 線	路 線 (個 國)	30(20)	3(2)
電 話 加 入 者 數	萬 回 線	174 (서울)	1 (평양)

6. 對 外 去 來

가. 貿易規模

韓國은 1960年代 初부터 國內資本의 不足을 外資로 充當하고 협소한 國內市場의 制限을 海外市場으로 補完하는 이른바 對外指向의 開發 戰略을 追求해 왔다.

이와 같은 開發戰略의 推進은 빈약한 賦存資源의 條件下에서 豊富한 勞動力을 生産資源化하여 急速한 經濟發展을 도모키 위한 韓國 經濟의 不可避한 選擇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韓國은 이러한 對外指向의 開發戰略의 成功的인 推進으로 높은 投資率의 持續과 貿易規模의 急速한 擴大를 이룩하였으며, 이는 韓國經濟가 高度成長을 이룩하는데 原動力이 되었다.

이와는 對照的으로 北韓은 自力更生의 기치아래 閉鎖的인 아우타르키 體制를 維持해 왔기 때문에 對外去來에 대해서는 消極的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對外去來는 어디까지나 그들 自給自足型 經濟에 증속된 하나의 補完手段으로써 간주되어 왔다.

北韓의 對外貿易은 “國家管理”에 의한 計劃貿易으로 實施되고 있으며, 貿易部 傘下의 國營商社와 協同貿易商社 등을 통해 對外貿易이 이루어지고 있다.

交易對象國에 있어서도 經濟를 政治目的과 結付시켜 60年代에는 共產圈 諸國과의 交易比重이 90% 以上을 占하고, 第3世界의 非同盟圈 諸國이 그 다음이었으며, 西方圈 諸國과의 貿易은 별로 重要視되지 않았다.

그러나 1970年代에 들어와서北韓의 貿易政策은 相當한 전환이 이루어졌다.

外資導入에 대한 關心이 高潮되는 가운데, 西方諸國과의 貿易擴大가 이루어졌다. 이러한北韓의 貿易政策 變化는 6個年 經濟計劃期間中 技術革命을 最高의 課業으로 내세웠는데 이를 爲해서는 最新 機械類의 輸入增大가 不可避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蘇聯의 技術水準이 西方圈에 比해 뒤지고, 蘇聯에 대한 貿易赤字가 相當水準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 償還에 問題가 發生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하여 1973年 石油波動 이래 西方 先進諸國이 貿易市場 擴大對策의 一環으로北韓에 對한 信用供與를 시작한 것도 그 理由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急激한 對西方 交易增大는 對外負債의 累増과 償還不能이라는 深刻한 事態를 惹起시킴으로써北韓의 對西方 交易은 1975年 以後 다시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1983年 現在 韓國은 통관기준으로 輸出은 244.4億弗, 輸入 261.9億弗로 貿易總額이 506.3億弗에 이르고 있는데 비해北韓은 輸出 13.8億弗, 輸入 15.5億弗로 貿易總額이 韓國의 5.8%인 29.3億弗에 불과한 實情이다.

더우기北韓이 70年代에 들어서 對外貿易에 積極的인 政策을 取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1970~79년에 年平均 輸出 및 輸入伸張率이 13.6%와 11.4%로 韓國의 37.5%와 28.7%의 折半에도 못미치고 있다.

이 점을 勘案할 때 그 격차는 앞으로 더욱 擴大될 것으로 豫想된다.

南北韓 輸出 入推移

(通關基準 億弗)

分區 年度	韓 國			北 韓		
	輸 出 額	輸 入 額	貿 易 額	輸 出 額	輸 入 額	貿 易 額
1970	8.4	19.8	28.2	3.7	4.4	8.1
1975	50.8	72.7	123.5	8.1	10.9	19.0
1980	175.0	222.9	397.9	14.4	17.4	31.8
1981	212.5	261.3	473.8	13.0	16.0	29.0
1982	218.5	242.5	461.0	15.0	18.0	33.0
1983	244.4	261.9	506.3	13.8	15.5	29.3

한편 1983年 現在 國民總生産에 대한 貿易依存度를 살펴보면 韓國은 輸出依存도가 32.5%, 輸入依存도가 34.7%로, 貿易依存도는 67.2%에 이르고 있으며, 北韓은 輸出依存도가 9.5%, 輸入依存도 10.7%로 貿易依存도는 20.2%로 나타나고 있다. 韓國의 貿易依存도가 이처럼 높은 것은 對外指向的 開發戰略이 물고 온 不可避한 귀결이긴 하지만 한 나라의 經濟가 世界景氣 變動에 크게 影響을 받는다는 면에서 작금과 같이 世界景氣가 침체에 빠져있고 또한 保護貿易의 장벽이 더 높아질수록 長期的으로 보아 적지않은 影響을 받게 되는 취약점을 지니고 있다.

나. 貿易構造

輸出商品의 構造를 살펴 보면 韓國은 經濟開發計劃이 着手되기 以前인 1961年까지만 하여도 工產品輸出은 18%에 不過하고 1次產品이 82%를 차지하였다.

그 후 工業化가 진척됨에 따라 工產品 比重이 크게 늘어나 1983年에 是 工產品이 94.4%를 차지하고 1次產品은 5.6%에 不過하다.

輸出商品의 産業別 構成은 農産物 1.8%, 水産物 3.4%, 鑛山物 0.4%로 나머지 94.4%가 工產品이다. 그리고 이 工產品의 大宗은 纖維製品, 船舶, 電子製品, 신발類, 機械類, 鐵鋼製品 等이다.

北韓의 輸出은 當初 鐵鑛石, 非鐵金屬 等 주로 1次產品이었으나, 1960年代 半製品 輸出의 擴大過程을 거친 후, 70年代에 들어와서는 完製品 輸出의 擴大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輸出構造는 여전히 落後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事實은 1983年度 北韓의 輸出商品構造가 工產品 62%, 1次產品 38%라는 事實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또한 蘇聯과 日本에 대한 北韓의 主要 輸出商品이 金屬 및 鐵鋼製品과 各種 原鑛石, 마그네샤크링카, 石炭, 시멘트 等 鑛物資源이 大宗을 이루고 그 외 農水産物, 纖維類가 一部였다는 事實을 보아도 能히 알 수 있다.

輸入에 있어서는 韓國이 1983年에 資本財 29.8%를 除外하고는 거의 大部分이 輸出 및 內需用 原資財와 燃料이다. 그러나 北韓의 境遇 機械設備 等の 資本財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며 그 외 電氣製品 및 日用雜貨, 化學製品, 金屬製品 等이 主종을 이루고 있다.

이상과 같은 輸出入商品構造를 比較해 볼 때 韓國은 原資材를 輸

入하여 이를 加工輸出하는 貿易形態를 取하고 있는데 반해, 北韓은 原資材를 輸出하고 完製品을 輸入하는 後進的인 輸出入商品構造를 보여주고 있다.

地域別 貿易構造를 보면 韓國은 그동안 貿易規模의 擴大와 貿易市場의 深化를 爲한 積極的인 市場多變化 政策을 推進함으로써 1983年 現在 世界의 176여개국가와 교역을 行하고 있다.

이와함께 종래 美國과 日本에 편중되었던 市場構造도 상당히 개선되어 이 제는 美國과 日本의 市場占有率은 輸出이 47.6%, 輸入이 47.8%로서 1979年까지 輸出入 公히 절반수준 以上을 차지하던 것이 많이 減少되고 있는 趨勢를 보여주고 있다.

北韓은 現在 約 60餘個國家와 交易關係를 가지고 있는데 不過하며, 貿易總額에 대한 對象地域別 比重은 1963年까지만 해도 共產圈諸國이 90%以上을 차지했으나, 점차 減少되었으며 특히 70年代에 들어와 北韓의 對西方圈 接近이 強化됨에 따라 對西方圈 貿易增加率이 크게 높아져 1974年에는 이 地域에 對한 貿易比重이 53.6%로 增加해, 한 때나마 對共產圈 貿易比重을 능가한 境遇도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對西方圈 貿易의 擴大가 주로 技術革新을 爲한 資本財輸入의 擴大에 의해 主導됨에 따라 外債累增의 問題를 惹起시키는 同時에, 外資不足으로 因한 外債償還不能事態를 發生시키게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1975年부터는 對西方 交易이 急激히 減少하기 시작하였고 다시 對共產圈 交易의 比重이 높아졌다.

北韓의 貿易은 蘇聯, 中共, 日本에 편중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

들 3개국에 對한 貿易依存度는 1980年 現在 輸出이 각기 31%, 24%, 11%이며, 輸入은 27%, 22%, 19%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볼 때 北韓은 이 세나라에 輸出의 66%, 輸入의 68%를 依存함으로써 交易의 多變化는 이루지 못하고 있다.

7. 住民生活水準

오늘날 自由主義 國家에서는 民主福祉社會의 建設을 目標로 인플레이션 없는 安定的 成長과 雇傭機會를 擴大, 추구하는 한편, 租稅政策과 社會開發 政策으로 階層間의 富의 公正分配를 實現시키고 있고 부단한 技術革新으로 勞動生産性を 높이고 能力差等制를 實施, 實質的인 賃金引上을 誘導하고 있다.

그러나 共產主義 國家들에 있어서는 社會經濟 體制의 矛盾性和 輕工業部門의 침체로 지난 1950年代 以後 自由主義의 國家들보다 國民生活水準이 크게 뒤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傾向은 北韓의 境遇 더욱 현저하다.

北韓에 있어서는 國民總生産에 對한 中央豫算規模는 77%에 이르고 있고 地方豫算 規模도 10%以上 점하고 있어 公經濟의 比重이 90% 内外를 차지하고 있고 私經濟는 10%정도에 不過한 바 이는 蘇聯이나 東歐諸國의 財政規模가 國民總生産의 50~60%인 것에 비해 公經濟의 比重이 훨씬 높은 것으로써 私經濟部門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韓國과는 전혀 다르다.

이와 같은 南北韓의 異質的 經濟體制下에서 住民의 實質生活 水準을 比較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인데다 價格構造, 消費樣相等에 關한

北韓의 統計資料는 거의 허위적으로 작성되어 있어 比較에 무리가 많다.

따라서 여기서는 南北韓 1人當 GNP에서 再生産을 爲해 必要한 投資의 負擔과 군사비의 支出額을 감안한 後 實質적으로 住民의 후생을 爲해 消費되어진 1人當 消費支出 規模를 算出해 棼으로써 南北韓의 實質적인 生活水準을 比較 檢討하고자 한다.

앞에서 이미 比較한 바와 같이 1983年度 韓國의 1人當 GNP는 1,884 弗이며 北韓은 765 弗로서 韓國이 北韓보다 2.5 배나 높은 水準에 있다.

한편 國民總生産에 對한 군사비 負擔을 比較하여 보면 韓國은 5.8% 인데 比해, 北韓은 23.5%이며 經濟의 擴大 再生産을 爲한 投資率은 韓國이 27.8%이나 北韓은 約 30% 水準의 높은 投資率을 維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1人當 國民總生産에서 1人當 投資負擔額과 군사비부담액을 차감한 것을 1人當 消費額으로 定義하여 본다면 韓國은 민간소비지출의 比率이 63.7%를 棼하고 있으므로 實質적인 消費水準이 1,200 弗로 나타나는데 比해 北韓은 住民의 消費 比率이 約 40.5%로서 356 弗 水準에 不過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같은 現況을 살펴 보면 南北韓間의 實質적인 消費水準은 約 3.3:1의 현격한 격차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1人當 GNP 規模가 南北韓間에 2.5:1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데다가 南北韓의 投資率 및 軍事費負擔率의 차이로 인하여 나타난 당연한 結果라고 하겠다.

1人當 國民總生産と 住民 消費水準

(1983年 現在)

區 分	單 位	韓 國	北 韓
1人當國民總生産	弗	1,884	765
1人當消費水準	〃	1,200	356
(投 資 率)	%	(27.8)	(30)
(軍 事 費 負 擔 率)	〃	(5.8)	(23.5)
(民 間 消 費 率)	〃	(63.7)	(46.5)

V. 南北韓 經濟成長 展望

1. 南北韓 經濟의 強弱點

가. 韓 國

賦存資源이 不足하고 資本과 技術이 貧困한데다가 人口는 過多한 그야말로 不利한 開發與件下에서 韓國의 經濟發展을 위한 基本的인 開發戰略은 한마디로 對外指向的 成長戰略이었다.

慢性的 失業, 絶對的 貧困, 國際競爭力의 脆弱性, 膨脹하는 人口와 國家安保에 必要한 資源調達과 같은 根本的인 問題를 解決하기 위하여는 오로지 成長만이 우리가 擇할 수 있는 길이었다.

60年代 以後 韓國이 推進한 經濟政策과 推進過程, 經濟成長 成果 등을 綜合 評價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次産業의 成長, 特히 2次計劃以後의 重化學工業開發로 産業構造가 크게 改善되었으며 이같은 産業構造의 改善은 劃期的인 輸出 增大의 基盤이 되었다.

둘째, 開放體制下에서의 對外指向的 成長을 追求하여 國際經濟協力の 增大와 貿易伸長을 기하여 왔는 바, 이는 1964年 韓·日國交의 正常化, 外資導入의 積極 推進 등으로 投資財源을 調達하였고 貿易自由化의 擴大와 世界經濟의 潮流에 順應하면서 國際競爭力을 強化해 온 結果이다.

셋째, 自立經濟의 基盤을 構築하였다. 韓國經濟는 6·25動亂 以後 外國援助에 依存하였으나 經濟開發計劃의 成功的인 推進으로 外援을 일

적 지양하게 되었고, 以後 外資導入에 依存하였으나 漸次 外資의 依存率도 減少되어 自立的 經濟成長의 基盤을 닦아 成長과 發展의 潛在力量을 鞏固化하였다.

이와 같이 韓國의 開發戰略은 國民經濟의 成長潛在力을 向上시켜 開放體制에 의한 對外指向的인 工業化過程에 成功함으로써 自然資源의 不足과 開發初期에 있어서의 投資財源의 不足을 克服하고 持續的인 高度成長을 實現시킨 것이다.

工業化過程에서는 輕工業에서 重工業, 重工業에서 重化學工業으로 段階的 發展을 追求하였고 對內外的으로 安定的 成長基盤을 構築하였다.

그러나 韓國經濟는 外資依存과 國際收支의 慢性的 赤字라는 弱點을 갖고 있다 하겠다.

따라서 政府는 그동안 대폭적인 輸出伸長으로 1977年에는 그 赤字를 어느정도 補填할 수 있을 정도로 호전되었으나 第2次 오일쇼크로 인한 世界的인 景氣의 下落과 保護貿易主義 傾向, “資源내셔널리즘”의 대두 등으로 赤字는 계속되고 있으며 外債負擔은 가중되고 있다.

最近 韓國은 輸出商品의 多樣化, 高級化 및 輸出地域의 多變化로 世界的인 不景氣 및 諸般 貿易障壁에도 불구하고 貿易赤字의 폭이 크게 줄어들고 있고 이와 같은 추세로 나간다면 80年代 후반에 가서는 貿易赤字를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展望된다.

나. 北 韓

北韓은 韓國에 比하여 地下資源이 相對的으로 豊富한 點에서 強點을 갖고 있으나 北韓도 窮極的으로는 汎世界的 次元에서 볼때, 그

들의 內需市場基盤이 적다 할지라도 資源이 不足한 資源貧國에 屬한다. 따라서 北韓도 對外貿易의 必要性이 있고 開放化의 要求가 있으나 閉鎖體制를 고수하므로써 對外協力과 貿易을 무시하였음은 經濟開發面에서의 커다란 脆弱點이 되고 있다.

또 北韓은 重工業優先政策을 추구하므로써 特殊産業部門의 奇形的 發展은 기할 수 있었으나 産業全般의 發展과는 聯關性을 맺을 수 없다는 點에서 制約을 받고 있다.

以外에 北韓은 經濟管理의 硬直化, 細分化에 따르는 “機關本位主義”와 “官僚主義”가 漫然되어 있고 生産活動에 있어서도 私的 所有와 利潤動機를 무시한 채 지나치게 思想的 誘引에만 依存하고 있기 때문에 生産性이 低下되고 있다는 點이 對內經濟의 深刻한 問題點으로 指摘된다. 北韓은 1958年 農業의 集團化 및 商工業의 國公有化가 完了된 以後 住民들의 私的 所有를 否定하여 왔다.

이에 따라 住民들은 國公有財産에 대한 所有意識이 결여되어 있어 生産活動에 대한 責任感이 低下되고 있으며 原資材를 浪費하고 流用하는 經濟的 非能率까지 빚어내고 있는 實情이다. 그러나 北韓當局은 이와 같은 現象이 根本적으로 私的 所有의 否定과 利潤動機의 無視에서 招來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속도전”, “3大革命붉은旗爭取運動” 등 각종 勞力競爭運動을 展開하는 등 住民들의 競爭心を 誘發시키는 思想的 誘引만을 強調함으로써 減退된 生産意慾을 鼓吹시키고자 努力하여 왔다.

2. 展望과 結論

가. 對內外的 經濟環境

韓國經濟가 對內外 興件的 激深한 變動에 直面하고 있는 것이 事實이다. 먼저 對外的 經濟環境을 살펴 보면 가장 特徵的인 現象으로서 過去 어느 때보다도 技術革新의 速度가 빠르다는 點을 指摘할 수 있다.

지난 1, 2次 石油波動以後 더욱 急速한 速度로 進展되고 있는 技術의 變化는 人力, 에너지 및 資源을 節約시키는 한편 經濟水準의 상이한 國家間的 國際分業體制를 크게 變貌시킬 것으로 豫想된다.

즉 先進國과의 比較優位는 漸次 知識, 研究, 資本集約的 情報産業, 宇宙産業, 生命工學 等 尖端産業部門으로 履行될 可能性이 큰 반면에 韓國과 같은 新興工業國은 技術, 技能集約的인 組立加工産業, 重化學工業이 比較優位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점이다.

그러나 短期的으로 보면 世界經濟는 需要不足으로 向後 10 餘年間은 低成長의 時代를 맞이할 可能性이 크다. 이에 따라 對外依存도가 높은 韓國은 國際貿易의 萎縮으로 인하여 持續的인 經濟成長에 比較的 큰 影響을 받을 公算이 크다.

이에 비하여 閉鎖體制를 고수하여 온 北韓의 境遇에는 世界經濟의 萎縮에 比較적 影響을 덜 받을 것으로 豫想되나 現在의 慢性的인 對內的 經濟沈滯를 타개하기 위하여는 閉放化의 模索이 불가피한 實情에 있기 때문에 開放體制로의 轉換에 있어서는 그 負擔이 더욱 加重되는 結果가 될 것이다.

한편 對內的인 經濟環境을 보면 韓國은 1960年, 1970年代에 持續的인 高度成長을 이룩하여 成長潛在力量은 顯著히 增大되었으나, 大企業을 中心으로 한 偏重成長으로 인하여 變化에 대한 適應力이 比較的 높은 中小企業과의 均衡的 發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實物經濟의 成長에 비하여 金融產業이 그 規模에 있어서나 經營技法面에서 뒤떨어져 있는 實情이다.

따라서 韓國은 앞으로 變化에 대하여 彈力的인 中小企業을 보다 積極的으로 育成시키는 한편, 政府役割의 縮小와 競爭體制를 導入하게 될 것이다.

또한 “第2의 跳躍”이 外債의 輕減과 內資動員의 極大化를 通해서만이 可能하다는 點을 勘案할 때 健全한 金融市場의 育成도 時急한 課題로 등장할 것이다.

北韓의 경우에는 過重한 軍事費 負擔으로 開發資源이 蠶食되고 있고 自力更性の 原則, 즉 閉鎖體制를 고수함으로 말미암아 自然資源의 制約과 資本不足 및 技術의 落後性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北韓의 對內的 經濟與件이 이미 限界에 逢着해 있음을 勘案한다면, 北韓은 經濟的 落後性을 면키 위해서는 閉鎖社會의 門戶를 開放해야만 한다는 點으로 歸結된다.

換言하면 北韓의 開放化의 必要性은 對內的인 經濟成長의 限界로 인하여 더욱 더 높아질 것으로 展望된다는 點이다.

그러나 開放體制로 轉換은 窮極的으로 閉鎖社會의 門戶를 開放해야 하는 決斷이 뒤따르기 때문에 執權層이 이를 實現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다.

나. 韓國 經濟社會 發展 展望

韓國은 70年代부터 重點的으로 開發하기 시작한 重化學工業의 急速한 成長이 이루어짐에 따라 機械, 金屬, 化學, 造船, 電子工業 등의 重要 基幹産業이 成長主導産業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들의 開發着手는 北韓보다 늦기는 하였으나 成長潛在力量이 顯著히 컸기 때문에 現在 대부분의 部門에서 生産能力面이나 生産量 및 그 品質에서 優位를 確保하고 있다. 앞으로 韓國은 더 나은 投資 與件의 造成과 産業間의 聯關效果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社會間接資本 部門의 投資를 더욱 늘려나갈 것이며, 특히 生活水準의 向上에 따른 生活環境과 關聯된 社會開發 및 發展에 대한 投資도 크게 增大시키 나갈 것이다. 또한 地域間의 均等한 發展과 國土空間의 效率的인 活用을 위한 巨視的이고 綜合的인 投資가 大幅 이루어질 것이며, 특히 高等教育 機會의 增大, 失業의 解消와 醫療保險을 비롯한 諸保險 등 社會福祉政策이 더욱 활발하게 推進될 것이다.

80年代 韓國經濟의 모습은 5次計劃이 마무리되는 1986年의 國民總生産은 1千億弗에 이르고 1人當 國民總生産은 2,300 ~ 2,400 弗의 水準으로 늘어남과 동시에 就業人口도 1千6百餘萬名으로 늘어나 失業率은 1980年의 5.2%에서 4%미만으로 改善될 것이다.

한편 國民生活도 向上되어 住宅普及率은 78%, 上水道普及率은 70%로 높아지고 醫療保險受惠率은 66%로 擴大되는 한편, 醫師 1人當 人口數는 1980年의 1,485名에서 1,275名으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

또한 大學門戶의 擴大에 따라 大學就學率도 높아져서 1980年의 16%에서 1986년에는 2배가 늘어난 31%로 擴大되고 人口 100人當

電話普及率도 7臺에서 3倍 가까이 늘어난 19臺로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第5次 計劃期間中 서울-大田間을 1時間差로 있는 超高速 電鐵을 着工하고 湖南線區間中 裡里-松汀間의 101km를 複線化할 것이다.

한편 大邱-光州間 東西高速道路의 建設 開通으로 嶺南과 湖南間의 交流가 擴大될 것이며 國道 2,240 km를 鋪裝하여 國道鋪裝率을 72%까지 높일 것이다.

對外貿易의 伸張에 따른 物動量의 增加에 對處할 수 있도록 釜山·仁川 등 主要 港灣施設을 擴充하여 港灣荷役能力을 1億3千萬噸으로 增加시키고 金浦, 金海, 濟州空港을 擴張하여 國內旅客의 輸送能力을 높여 나갈 것이다.

또한 水資源의 効率的 開發을 위하여 忠州댐, 합천댐, 落東江河口堰을 計劃期間中에 完工하고 주암댐을 着工할 것이며, 홍수의 事前豫防을 위하여 河川 810 km를 改造할 것이다. 이러한 努力의 結集으로 80年代 “第2의 跳躍”을 達成하고 第5共和國의 基本理念인 民主, 正義, 福祉를 具現해 나갈 것으로 展望된다.

다. 北韓經濟體制의 變化

北韓은 制限된 資源, 小規模의 經濟單位에도 불구하고 重工業優先政策을 推進하여 資源 浪費가 많았고 莫大한 軍事費負擔과 閉鎖的인 自給經濟體制를 고수하였기 때문에 經濟開發에 失敗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다.

앞으로 北韓은 經濟成長의 落後性을 克服하기 위해서는 閉鎖體制로부터 開放體制로 그들의 體制를 轉換할 수밖에 없는 實情인데, 그

까닭은 自然資源의 制約과 資本不足 및 技術의 落後性 때문이라 하겠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北韓體制의 原動力은 政治的 “이데올로기”에 있기 때문에 經濟體制와 經濟政策은 그들 權力集團의 目的을 遂行하기 위하여 運營될 뿐만 아니라 軍事力自體도 이제껏 그들의 政治路線을 保衛하기 위하여 動員되어 왔기 때문에 政治的인 견지에서 본다면 體制의 修正 내지 變化가 있더라도 北韓의 經濟體制와 政策의 基本方向이 短期的으로 急旋回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東歐諸國의 改革이 항상 蘇聯의 반응을 의식하면서 行하여 졌다는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北韓이 蘇聯과의 政治, 經濟的 關係를 근본적으로 變化시켜야 하는 어려운 負擔도 감수하여야 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長期的으로는 既存 權力集團의 死亡 및 權力暗鬭 등으로 인한 權力體制의 再編成으로 작금 대두 하고 있는 “테크노크라트”(Technocrat) 세력의 浮上和 自己完結的 自體矛盾의 수정을 爲한 政策變化가 있을 때에는 “變化促進要因”이 “變化抑制要因”보다 強하게 작용하여 南北對峙의 狀況助 認識의 범위내에서 調整期, 緩衝期라는 名目下에 부분적인 合理化, 實用化 改革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리라고 예상된다.

最近에 와서 北韓의 閣僚級 代表團이 大舉 中共의 經濟特別地區를 視察하고 있고 先進 技術 및 設備 導入을 위해 西方諸國과 合作投資 誘到를 조심스럽게 기도하고 있는 것은 體制, 特히 對外經濟協力에 대한 基本 見解에 變化가 일고 있음을 立證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民主統一力量과 社會正義를 具現하기 위한 統治力
량을 계속 배양해 나가야 할 것이며, 閉鎖的이고 異端者的인 北韓이
라 할지라도 우리 民族의 한 成員으로 수용할 수 있는 態勢를 整備
해 나가야 할 것이다.

